소망을 나누는 마음

202405

5월

가 정 의 달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강림주일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유아 세례	**온 가족 예배**	**아동 세례**

소망교회
THE SO-MANG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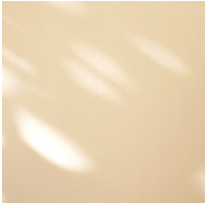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202405

© 2024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CONTENTS

May | 2024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진리의 부르심 앞에서 4

깊어지는 영성
부활의 신앙 | 김경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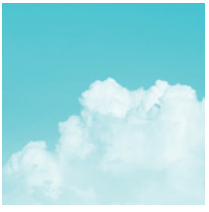
묵상에 붙임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 이종태 10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에스라 16

5월 본문
에스라·예레미야 20
1주(5/6) | 2주(5/13) | 3주(5/20) | 4주(5/27)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 장태식 · 유진아 48

소망사랑방
불꽃으로 피우고 간 생 | 장춘 92

신앙과 앎
성령,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 김경래 132

이달의 기도
시작, 이후의 자리에서 208

소망마당
2박 3일, 다시 복음에 사로잡힌 시간 | 최고은 210

가정예배
5월,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214

그림묵상
최후의 만찬2 | 이호연 220

예배자의 길
5월, 우리의 고백 | 황주은 · 안진현 · 장선영 222

가정탐구
생육과 번성 | 홍인종 226

일과 영성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 방선기 230

소망뉴스
5월 소식 234

진리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충만한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옵고
우리 안에 성결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깊어지는 영성

부활의 신앙

글 **김경진**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아니실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겸손하게 낮아진 분이셨습니다. 작은 자들과 병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 없는 그분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악의 승리요, 세상의 승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지금도 악은 선을 지배하죠. 세상을 호령합니다. 악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선한 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한다면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 다시 살려 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 후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부활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도저히 악을 이길 수는 없어! 진리를 지키는 것은 허무한 일이야!"
그렇게 말했지.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진리는 살아났다.
결코 진리는 죽일 수 없다. 정의는 땅에 묻을 수 없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에 선이 승리하는 것이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는 살아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인은 의의 도구로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롬 6:12~13)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새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의의 도구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표현합니다. "이 마귀를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라는 가사는 마치 절망적인 우리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3절이 필요합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 새찬송가 585장 3절 -

이것이 부활 믿음입니다. 진리와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며 앞이 깜깜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진리가 있다. 그리고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글 이종태

여러분은 봄을 좋아하시나요?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른들은 그렇게 봄 구경하기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애들아, 저 봄 봐라
창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힐끗 보곤 끝입니다.

지들이
마냥 봄인데
보일 리가 있나요.

고춘식, 「봄, 교실에서」

네, 어른들이 봄을 좋아하는 것은, 실은 역설적이게도 어른들의 내면이 을씨년스럽기 때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라 봄의 수혈이 필요한 것이지요. 봄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C.S.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움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잠기고, 그 아름다움을 흡입하고,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고, 그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봄을 앓습니다. 봄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저는 우리말 '아름답다'와 '아리다'는 서로 통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립니다.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움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그리움, 아름다움의 바다인 **하늘**을 그리는 마음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본래 하늘이라는 **아름다움의 바다**에서 살도록 지음 받은 존재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잠겨서, 아름다움을 마시며, 아름다움 속을 헤엄치며, 아름다움을 호흡하며, 아름다움을 살아 내며, 그렇게 그 자신이 하늘 아름다움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바다 바깥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그 바다를, 하늘을 아리도록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또 기독교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우리를 정말 살아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그리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움이 살아 있어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anthropos'인데, 학설에 따르면 '안드로포스'란 **위를 바라보는**ano+throsko 존재라는 뜻입니다.

네,
하늘을 앙망하고,
영원을 동경하고,
신을 그리워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
'안드로포스'인 것입니다.

- 이종태 『경이라는 세계』 (복있는사람, 2023) 160~1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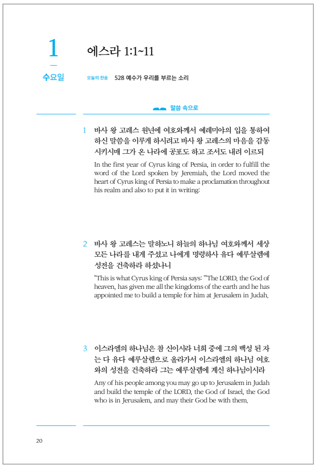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망말씀나눔 본문에 따른 새벽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App Store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안드로이드폰** : T Store 혹은 Google Play에서 '소망교회'로 검색하여 설치
- **문의** : 교회사무실 02-512-9191 (내선 141~145)

말씀 속으로



1 수요일 에스라 1:1~11

오늘의 찬송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 속으로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also to put it in writing: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Any of his people among you may go up to Jerusalem in Judah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God who is in Jerusalem, and may their God be with them.

20

1단계 : **준비**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단계

말씀 앞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마음을 흔들어놓거나 묵상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2단계 :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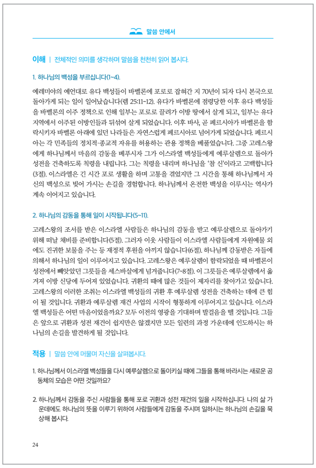
말씀을 읽고 귀로 듣는 단계

말씀을 두 번 정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나직하게 소리 내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입으로 읽으면 귀로 들리고, 귀로 들으면 그 뜻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처음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묵상집에 있는《이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적용**

말씀에 머물며 나를 살피는 단계

다시 한 번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새로 깨달은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에 머무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면 정직하게 답변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물며 나를 성찰하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 뿐 아니라 질책까지도 귀 기울이십시오. (묵상을 위한 질문인《적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1~4).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렘 25:11~12).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한 이후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살게 되고, 일부는 유다 지역에서 이주된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자 바벨론 아래에 있던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각 민족들의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중 고레스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베푸시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는 칙령을 내리며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3절). 이스라엘은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백성을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일이 시작됩니다(5~11).

고레스왕의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날 채비를 준비합니다(5절).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원예물 외에도 진귀한 보물을 주는 등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6절).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이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7~8절). 이 그릇들은 예루살렘에서 옮겨져 이방 신당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귀환의 때에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레스왕의 이러한 조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 사업의 시작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두 이전의 영광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때에 그들을 통해 바라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2.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봅시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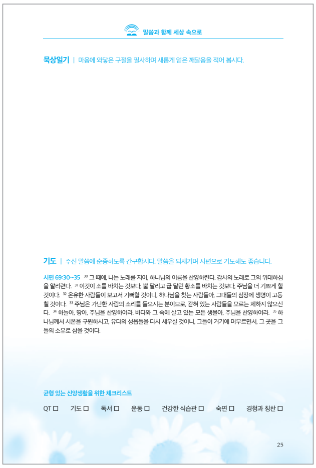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새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메시지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4단계 : **기도**

내 삶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단계

하나님께 응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9:30~35 [30] 그 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31]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32]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33]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체하지 않으신다. [34]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5

에스라(1~10장)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지 70년 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귀환은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데, 그중 1차와 2차 귀환이 에스라의 배경이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다음으로 땅의 권력을 잡은 후, 고레스왕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명한다. 그 장면을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한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스 1:1a)

귀환의 시작을 연 것은 고레스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기를 일삼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렘 31:33)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과 은총의 표지로 생각했다. 스룹바벨의 주도 하에 많은 이들이 부푼 꿈을 안고 귀환한다. 귀환자들의 명단에는 성전 회복의 바람이 들어 있다. 명단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및 성전 일을 돕는 자들의 목록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백성들의 명단은 마치 출애굽을 연상하듯 12개의 가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떠올리며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꾼 듯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회복'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당면하게 된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후 그들의 땅은 이방인들의 터전이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옛 모습을 되찾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소식이었다. 에스라서는 이들을 '대적'이라고 부른다. 대적들은 갖은 수를 다하여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사업을 방해한다. 성전 중단과 재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성전 건축만 완료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들의 삶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문화가 다시 틈탄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에스라를 보내신다. 에스라가 뜻이 있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2차 귀환이 이루어진다. 에스라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기가 막혀 탄식이 나오는 지경이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맹세한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신앙 개혁이 이루어진다.

에스라를 읽어 보면 역사 순서가 엄밀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적혀진 것

이기 때문이다. 에스라를 통해 말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학자는 '하나님의 집의 재건'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단순히 보이는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시적인 성전과, 비가시적인 성전 모두를 일컫는다. 위의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후 3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이어진다.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렘 31:34)

모두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한눈에 보는 이달의 본문

1~4일 주간		
1(수)	에스라 1:1~11	이스라엘의 1차 귀환
2(목)	2:1~35	돌아온 사람들上
3(금)	2:36~58	돌아온 사람들中
4(토)	예레미야 31:31~32:15	새 언약
6~11일 주간		
6(월)	예레미야 32:16~35	예레미야의 기도
7(화)	에스라 2:59~70	돌아온 사람들下
8(수)	3:1~13	성전 재건의 시작
9(목)	4:1~10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上
10(금)	4:11~24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下
11(토)	예레미야 32:36~33:13	영원한 언약
13~18일 주간		
13(월)	예레미야 33:14~34:7	여호와의 말씀
14(화)	에스라 5:1~17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15(수)	6:1~12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왕의 명령
16(목)	6:13~22	성전 봉헌
17(금)	7:1~10	에스라와 2차 귀환
18(토)	예레미야 34:8~22	여호와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기다
20~25일 주간		
20(월)	예레미야 35:1~19	예레미야와 레갑 사람들
21(화)	에스라 7:11~28	아닥사스다왕이 내린 조서
22(수)	8:1~14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
23(목)	8:15~23	에스라의 귀환 준비
24(금)	8:24~36	예루살렘 귀환
25(토)	예레미야 36:1~19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27~31일 주간		
27(월)	예레미야 36:20~32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다
28(화)	에스라 9:1~15	에스라의 회개 기도
29(수)	10:1~17	에스라의 신앙 개혁
30(목)	10:18~24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上
31(금)	10:25~44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下

5

May 2024

SUN	MON	TUE	WED
			1
5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유아 세례	6	7	8
12 어버이주일 온 가족 예배	13	14	15
19 성령강림주일 아동 세례	20	21	22 권사회 월례회
26	27	28	29

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HU	FRI	SAT
2	3	4
9	10 여전도회 연합예배	11
16	17	18
23	24	25
30	31	

1 — 수요일

에스라 1:1~11

오늘의 찬송 52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 속으로

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to make a proclamation throughout his realm and also to put it in writing:

2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This is what Cyrus king of Persia says: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appointed me to build a temple for him at Jerusalem in Judah.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Any of his people among you may go up to Jerusalem in Judah and build the templ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God who is in Jerusalem, and may their God be with them.

4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And in any locality where survivors may now be living, the people are to provide them with silver and gold, with goods and livestock, and with freewill offerings for the temple of God in Jerusalem.'"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Then the family heads of Judah and Benjamin, and the priests and Levites - everyone whose heart God had moved - prepared to go up and build the house of the LORD in Jerusalem.

6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All their neighbors assisted them with articles of silver and gold, with goods and livestock, and with valuable gifts, in addition to all the freewill offerings.

7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Moreover, King Cyrus brought out the articles belonging to the temple of the LORD, which Nebuchadnezzar had carried away from Jerusalem and had placed in the temple of his god.

1
—
수

8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Cyrus king of Persia had them brought by Mithredath the treasurer, who counted them out to Sheshbazzar the prince of Judah.

9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This was the inventory: gold dishes 30 silver dishes 1,000 silver pans 29

10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 밖의 그릇이 천 개이니

gold bowls 30 matching silver bowls 410 other articles 1,000

11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In all, there were 5,400 articles of gold and of silver. Sheshbazzar brought all these along with the exiles when they came up from Babylon to Jerusal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1~4).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렘 25:11~12).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한 이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살게 되고, 일부는 유다 지역에서 이주된 이방인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사, 곧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키자 바벨론 아래에 있던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각 민족들의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중 고레스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베푸시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조서를 내리며 하나님을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3절). 이스라엘은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백성을 이루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일이 시작됩니다(5~11).

고레스왕의 조서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날 채비를 준비합니다(5절).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원예물 외에도 진귀한 보물을 주는 등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6절).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이 성전에서 빼앗았던 그릇들을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7~8절). 이 그릇들은 예루살렘에서 옮겨져 이방 신당에 있었습니다. 귀환의 때에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레스왕의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귀환의 시작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두 이전의 영광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앞으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들은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때에 그들을 통해 바라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2.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9:30~35 30 그 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31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32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33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체하지 않으신다. 34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35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 — 목요일

에스라 2:1~35

오늘의 찬송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말씀 속으로

1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Now these are the people of the province who came up from the captivity of the exiles, whom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had taken captive to Babylon (they returned to Jerusalem and Judah, each to their own town,

2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왜와 르홈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in company with Zerubbabel, Joshua, Nehemiah, Seraiah, Reelaiah, Mordecai, Bilshan, Mispar, Bigvai, Rehum and Baanah): The list of the men of the people of Israel:

3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요

the descendants of Parosh 2,172

4 스바댜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of Shephatiah 372

5 아라 자손이 칠백칠십오 명이요

of Arah 775

6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팔백십이 명이요
of Pahath-Moab (through the line of Jeshua and Joab) 2,812

7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of Elam 1,254

8 삿두 자손이 구백사십오 명이요
of Zattu 945

9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이요
of Zakkai 760

10 바니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이요
of Bani 642

11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삼 명이요
of Bebai 623

12 아스갓 자손이 천이백이십이 명이요
of Azgad 1,222

13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육 명이요
of Adonikam 666

14 비그왜 자손이 이천오십육 명이요
of Bigvai 2,056

2
—
목

15 아딘 자손이 사백오십사 명이요
of Adin 454

16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팔 명이요
of Ater (through Hezekiah) 98

17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삼 명이요
of Bezai 323

18 요라 자손이 백십이 명이요
of Jorah 112

19 하숨 자손이 이백이십삼 명이요
of Hashum 223

20 깁발 자손이 구십오 명이요
of Gibbar 95

21 베들레헴 사람이 백이십삼 명이요
the men of Bethlehem 123

22 느도바 사람이 오십육 명이요
of Netophah 56

23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이요
of Anathoth 128

24 아스마 자손이 사십이 명이요
of Azmaveth 42

25 기랏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칠백사십삼 명이요
of Kiriath Jearim, Kephirah and Beeroth 743

26 라마와 게바 자손이 육백이십일 명이요
of Ramah and Geba 621

27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이요
of Mikmash 122

28 벧엘과 아이 사람이 이백이십삼 명이요
of Bethel and Ai 223

29 느보 자손이 오십이 명이요
of Nebo 52

30 막비스 자손이 백오십육 명이요
of Magbish 156

31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이요
of the other Elam 1,254

32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이요
of Harim 320

2
—
목

33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십오 명이요
of Lod, Hadid and Ono 725

34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이요
of Jericho 345

35 스나아 자손이 삼천육백삼십 명이었더라
of Senaah 3,630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1~2).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하는 자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귀환자들의 목록 중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개, 빌산, 미스발, 비그왜, 르훔, 바아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2절). 나열된 지도자들은 총 11명이지만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나하마니'를 더하면 12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느 7:7). 이 열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회복을 가시적으로 상징합니다.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귀환자들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뒤에 이어지는 명단의 수를 보면 포로보다 귀환자들이 더 수적으로 번성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영하여 나온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제2의 출애굽을 보여 줍니다. 이들을 향하여 저자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2. 백성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3~35).

귀환자 목록은 지도자 명단 후에 일반 백성의 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돌아간 자'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1~2절).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명단을 살펴보면 20절까지는 '누군가의 자손'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가문의 대표와 돌아온 자들의 수가 언급됩니다. 이 대표들의 이름은 포로로 잡혀 오기 이전에 고국에서 살았던 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비록 타국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이스라엘을 이어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35절에는 이스라엘의 옛 지명이 등장합니다. 어떤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의 땅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귀환이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자발적으로 귀환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의 기대가 이어집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귀환자들의 명단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약속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약속의 자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4:3~8 3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5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6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7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8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 — 금요일

에스라 2:36~58

오늘의 찬송 430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말씀 속으로

36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이요

The priests: the descendants of Jedaiah (through the family of Jeshua) 973

37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이요

of Immer 1,052

38 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이요

of Pashhur 1,247

39 하림 자손이 천십칠 명이었더라

of Harim 1,017

40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이요

The Levites: the descendants of Jeshua and Kadmiel (of the line of Hodaviah) 74

41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백이십팔 명이요

The musicians: the descendants of Asaph 128

42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백삼십구 명이었더라

The gatekeepers of the temple: the descendants of Shallum, Ater, Talmon, Akkub, Hatita and Shobai 139

43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The temple servants: the descendants of Ziha, Hasupha, Tabbaoth,

44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Keros, Siaha, Padon,

45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Lebanah, Hagabah, Akkub,

46 하갑 자손과 사믈래 자손과 하난 자손과

Hagab, Shalmai, Hanan,

47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Giddel, Gahar, Reaiah,

48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Rezin, Nekoda, Gazzam,

49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Uzza, Paseah, Besai,

3
—
금

50 아스나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Asnah, Meunim, Nephusim,

51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Bakbuk, Hakupha, Harhur,

52 바슬룻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Bazluth, Mehida, Harsha,

53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Barkos, Sisera, Temah,

54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Neziah and Hatipha

55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The descendants of the servants of Solomon: the descendants of Sotai, Hassophereth, Peruda,

56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Jaala, Darkon, Giddel,

57 스바댜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Shephatiah, Hattil, Pokereth-Hazzebaim and Ami

58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삼백구십이 명이었더라

The temple servants and the descendants of the servants of Solomon 392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열됩니다(36~42).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후 성전과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명단에서는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의 명단 뒤에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및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이 귀환자들은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맡은 일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귀향민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것과 비하면 레위인들의 수는 총 74명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레위인들 중에 자발적으로 귀환하고자 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이 제사장보다 귀하지 못한 일로 취급되거나, 성전을 위한 일보다 일반적인 삶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귀환자들 사이에 레위인들의 가치와 빈자리가 컸을 것이 예상됩니다.

2.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43~58).

이어지는 명단에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주다, 드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 드려진 사람, 곧 성전 일을 담당한 사람들로 추측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성전의 잡다한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58절에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그들을 한 무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다 합산한 숫자는 총 392명입니다. 제사장들이 4천 명 이상 모인 것에 비하면 이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귀환자들의 성전 운영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암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환자들의 성전 복구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레위인과 일꾼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써야 할 것이 예상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힘쓸 때에야 이스라엘의 외적 회복과 내적 회복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레위인들의 귀환 비율이 적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무리마다 귀환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각자 생각하는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5:1~3, 11~13 [1]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2]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3]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11]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12]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 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13]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4 — 토요일

예레미야 31:31~32:15

오늘의 찬송 279 인애하신 구세주여

말씀 속으로

3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people of Israel and with the people of Judah.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It will not be like the covenant I made with their ancestors when I took them by the hand to lead them out of Egypt, because they broke my covenant, though I was a husband to them," declares the LORD.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 people of Israel after that time,"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 in their minds and write it on their hearts.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people.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No longer will they teach their neighbor, or say to one another, 'Know the LORD,' because they wi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declares the LORD. "For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will remember their sins no more."

3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appoints the sun to shine by day, who decrees the moon and stars to shine by night, who stirs up the sea so that its waves roar - the LORD Almighty is his name:

36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Only if these decrees vanish from my sight," declares the LORD, "will Israel ever cease being a nation before me."

3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Only if the heavens above can be measured an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below be searched out will I reject all the descendants of Israel because of all they have done," declares the LORD.

4
—
토

38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this city will be rebuilt for me from the Tower of Hananel to the Corner Gate.

39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The measuring line will stretch from there straight to the hill of Gareb and then turn to Goah

40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The whole valley where dead bodies and ashes are thrown, and all the terraces out to the Kidron Valley on the east as far as the corner of the Horse Gate, will be holy to the LORD. The city will never again be uprooted or demolished."

1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열여덟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This is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in the tenth year of Zedekiah king of Judah, which was the eighteenth year of Nebuchadnezzar.

2 그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The army of the king of Babylon was then besieging Jerusalem, and Jeremiah the prophet was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in the royal palace of Judah.

3-5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Now Zedekiah king of Judah had imprisoned him there, saying, "Why do you prophesy as you do? You say,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about to give this city into the hands of the king of Babylon, and he will capture it. Zedekiah king of Judah will not escape the Babylonians but will certainly b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king of Babylon, and will speak with him face to face and see him with his own eyes. He will take Zedekiah to Babylon, where he will remain until I deal with him, declares the LORD. If you fight against the Babylonians, you will not succeed.'"

6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Jeremiah sai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7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무를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Hanamel son of Shallum your uncle is going to come to you and say, 'Buy my field at Anathoth, because as nearest relative it is your right and duty to buy it.'

4
—
토

8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무를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Then, just as the LORD had said, my cousin Hanamel came to me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and said, 'Buy my field at Anathoth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Since it is your right to redeem it and possess it, buy it for yourself.' "I knew that this was the word of the LORD;

9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십칠 세겔을 달아 주되

so I bought the field at Anathoth from my cousin Hanamel and weighed out for him seventeen shekels of silver.

10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I signed and sealed the deed, had it witnessed, and weighed out the silver on the scales.

11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I took the deed of purchase - the sealed copy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the unsealed copy -

12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 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부치며

and I gave this deed to Baruch son of Neriah, the son of Mahseiah, in the presence of my cousin Hanamel and of the witnesses who had signed the deed and of all the Jews sitting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13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In their presence I gave Baruch these instructions: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Take these documents, both the sealed and unsealed copies of the deed of purchase, and put them in a clay jar so they will last a long time.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For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Houses, fields and vineyards will again be bought in this lan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31~4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31절).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맺던 언약의 연장선이거나 그것과 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이미 깨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뜨린 장본인인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 관계를 이어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맺는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33절). 그때가 되면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34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섭리가 계속 이어지는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살 터전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다시 생활의 터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북쪽 지역부터 시작하여 남쪽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잿더미로 가득한 황폐해진 땅들이 다시 거룩한 여호와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40절).

2.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삽니다(1~15).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있을 포로기간도 함께 예언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를 시드기야왕은 감금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3절).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지고 점령당하는 것은 민족의 멸망과 마지막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에 의하면 포로기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멜의 아나돗 땅을 사게 하십니다(6~8절). 하나멜은 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예상하고 땅을 무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팔리는 땅을 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돗 땅을 은 십칠 세겔을 주고 삽니다. 은 십칠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1년 6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큰돈을 들여 땅을 산 것은 포로기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고한 행동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가 뜨고 지는 모든 자연의 섭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동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득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2.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미래를 향한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63:1~5 [1]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2]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3]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4]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5]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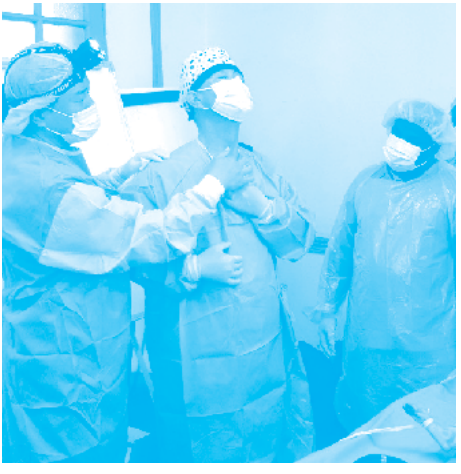
마다가스카르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글 **장태식·유진아** (마다가스카르 선교사)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장태식 집사와 유진아 권사입니다.
이 글을 보실 때쯤이면 저희는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해 있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부모님 신세만 지다가 1~2달 안에 효도를 벼락치기로 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분 모두 일상생활을 잘 회복하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 도움을 받아 마다가스카르에 나와 있는지도 10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전에 새가족에서 총무까지 20년 가까이 소망교회 의료선교부에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마다가스카르의 이재훈·박재연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부족하지만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다가스카르에 직접 오게 되었습니다. 이재훈·박재연 선교사님은 '길 위의 닥터'로 알려진 분들이십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며 마다가스카르의 지방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양성프로그램을 KOICA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그간 의사로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곳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남한의 4배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그중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일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 정도이며 대한민국의 1/60 정도입니다. 하지만 20세 이하의 국민이 70%를 차지하고 교육열도 뜨거워 대한민국이 1970~2000년에 보여 준 성장을 장차 이룰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저희의 사역으로는 우선 지역병원으로 갈 20명의 의사들을 4개의 도립병원에서 현지 의사들에게 수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상태의 모니터링과 필수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현지 사정에 맞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저개발 국가에 맞는 의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마다가스카르의 지역병원에 필요한 곳으로 통합 300명을 보내고자 합니다(doctors for doctorless and Gideon and his 300 men). 따뜻하고 실력있는 의사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다가스카르 지역 곳곳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병아리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와 있다 보니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선교란 매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고 두드리며 찾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 마다가스카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 가족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 투병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전립선암과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의 치매가 잘 치료되고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5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5~11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은 모두 영원합니다. (시편 119:160)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 월요일

예레미야 32:16~35

오늘의 찬송 280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말씀 속으로

16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 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After I had given the deed of purchase to Baruch son of Neriah, I prayed to the LORD:

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Ah, Sovereign LORD, you have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by your great power and outstretched arm. Nothing is too hard for you.

18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You show love to thousands but bring the punishment for the parents' sins into the laps of their children after them. Great and mighty God, whose name is the LORD Almighty,

19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great are your purposes and mighty are your deeds. Your eyes are open to the ways of all mankind; you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their conduct and as their deeds deserve.

20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You performed signs and wonders in Egypt and have continued them to this day, in Israel and among all mankind, and have gained the renown that is still yours.

21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You brought your people Israel out of Egypt with signs and wonders, by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terror.

22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You gave them this land you had sworn to give their ancestor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23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They came in and took possession of it, but they did not obey you or follow your law; they did not do what you commanded them to do. So you brought all this disaster on them.

6
—
월

24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See how the siege ramps are built up to take the city. Because of the sword, famine and plague, the city will b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who are attacking it. What you said has happened, as you now see.

25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And though the city will b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you, Sovereign LORD, say to me, 'Buy the field with silver and have the transaction witnessed.'"

26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I am the LORD, the God of all mankind. Is anything too hard for me?

28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about to give this city into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and to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who will capture it.

29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The Babylonians who are attacking this city will come in and set it on fire; they will burn it down, along with the houses where the people aroused my anger by burning incense on the roofs to Baal and by pouring out drink offerings to other gods.

30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 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e people of Israel and Judah have done nothing but evil in my sight from their youth; indeed, the people of Israel have done nothing but arouse my anger with what their hands have made, declares the LORD.

31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From the day it was built until now, this city has so aroused my anger and wrath that I must remove it from my sight.

32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The people of Israel and Judah have provoked me by all the evil they have done - they, their kings and officials, their priests and prophets, the people of Judah and those living in Jerusalem.

33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They turned their backs to me and not their faces; though I taught them again and again, they would not listen or respond to discipline.

34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They set up their vile images in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and defiled it.

35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They built high places for Baal in the Valley of Ben Hinnom to sacrifice their sons and daughters to Molek, though I never commanded - nor did it enter my mind - that they should do such a detestable thing and so make Judah si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레미야가 애통으로 땅을 준비합니다(16~25).

예레미야가 아나돗 땅을 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땅을 준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슬프도소이다"(17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으며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강한 손과 편 팔로 백성들을 이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21~22절). 그럼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중추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깨져 버렸으며 여러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근과 염병이 돌고 바벨론의 점령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멸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픔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아나돗 땅을 준비합니다.

2.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26~35).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함락되고 도성 중에 있던 우상의 제단들까지도 모두 불태워집니다. 이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것이며 수차례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던 문제의 대상입니다. 우상의 형상은 백성들의 죄악과 무지함을 대표하는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며 격노하셨고 백성들은 자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다고 여김을 받은 왕들이 몇 차례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이 뿌리 뽑히지 않는지, 산당들은 끊임없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포로기간은 백성들에겐 고난의 시간이지만 내면에는 백성들 사이에 깊게 자리잡고 있던 우상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백성들의 믿음이 연단받는 시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혈로 말미암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2. 내 마음 가운데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불의한 습관이 있습니까? 연단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됩니다. 습관을 멈추고 정결하게 해 주시길 간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0:1~5 [1]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셨네. [2]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3]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4]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5]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7
—
화요일

에스라 2:59~70

오늘의 찬송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말씀 속으로

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The following came up from the towns of Tel Melah, Tel Harsha, Kerub, Addon and Immer, but they could not show that their families were descended from Israel:

60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육백오십이 명이요

The descendants of Delaiah, Tobiah and Nekoda 652

61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의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을 따른 자라

And from among the priests: The descendants of Hobaiah, Hakkoz and Barzillai (a man who had married a daughter of Barzillai the Gileadite and was called by that name).

62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These searched for their family records, but they could not find them and so were excluded from the priesthood as unclean.

63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The governor ordered them not to eat any of the most sacred food until there was a priest ministering with the Urim and Thummim.

64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The whole company numbered 42,360,

65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besides their 7,337 male and female slaves; and they also had 200 male and female singers.

66 말이 칠백삼십육이요 노새가 이백사십오요

They had 736 horses, 245 mules,

67 낙타가 사백삼십오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더라

435 camels and 6,720 donkeys.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When they arrived at the house of the LORD in Jerusalem, some of the heads of the families gave freewill offerings toward the rebuilding of the house of God on its site.

69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다릭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According to their ability they gave to the treasury for this work 61,000 darics of gold, 5,000 minas of silver and 100 priestly garments.

7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The priests, the Levites, the musicians, the gatekeepers and the temple servants settled in their own towns, along with some of the other people, and the rest of the Israelites settled in their town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귀환자의 목록에 신중을 가합니다(59~63).

추가적으로 선조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자들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확증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들 중에도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인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재건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방 요소를 제거하며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귀환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정체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의 경우에만 확증이 없으면 직분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주장으로 직분을 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확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제사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성전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63절). 우림과 둠밈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새롭게 준비되는 신앙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 정체성을 쌓기 위해 신중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귀환자들이 각 성읍으로 돌아갑니다(64~70).

귀환자들의 합계가 총 4만 2,360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의 목록에 제시된 사람들의 수를 합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그룹의 명단을 더하면 약 3만 명 정도이며 1만 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합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록에서 여인과 아이의 수가 빠져 있거나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거두어진 헌물을 통해 규모를 계산한 것이 각 지파를 셈한 것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환자들의 정확한 숫자가 어떠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3차까지 진행되는 귀환자들의 무리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 성전 터에 이르러 몇몇 족장들은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예물을 드립니다(68절). 이전에 고레스왕과 이웃들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고국에 도착한 이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70절). 1절의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마지막 절에도 반복되며 귀환자의 목록이 마무리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오랜 시간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는 무리들은 거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시작할 때 세운 가치와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2.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귀환자들이 각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제2의 출애굽으로도 불리는 포로 귀환자들과 모세 때 출애굽한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시겠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6:1~6 [1]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2]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3]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4]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 보내 주십시오. [5]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8 — 수요일

에스라 3:1~13

오늘의 찬송 550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말씀 속으로

1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When the seventh month came and the Israelites had settled in their towns, the people assembled together as one in Jerusalem.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Then Joshua son of Jozadak and his fellow priests and Zerubbabel son of Shealtiel and his associates began to build the altar of the God of Israel to sacrifice burnt offerings on it,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the man of God.

3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Despite their fear of the peoples around them, they built the altar on its foundation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on it to the LORD, both the morning and evening sacrifices.

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Then in accordance with what is written, they celebrated the Festival of Tabernacles with the required number of burnt offerings prescribed for each day.

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After that, they presented the regular burnt offerings, the New Moon sacrifices and the sacrifices for all the appointed sacred festivals of the LORD, as well as those brought as freewill offerings to the LORD.

6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they began to offer burnt offerings to the LORD, though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had not yet been laid.

7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Then they gave money to the masons and carpenters, and gave food and drink and olive oil to the people of Sidon and Tyre, so that they would bring cedar logs by sea from Lebanon to Joppa, as authorized by Cyrus king of Persia.

8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In the second month of the second year after their arrival at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Zerubbabel son of Shealtiel, Joshua son of Jozadak and the rest of the people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all who had returned from the captivity to Jerusalem) began the work. They appointed Levites twenty years old and older to supervise the building of the house of the LORD.

9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Joshua and his sons and brothers and Kadmiel and his sons (descendants of Hodaviah) and the sons of Henadad and their sons and brothers - all Levites - joined together in supervising those working on the house of God.

10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When the builders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the priests in their vestments and with trumpets, and the Levites (the sons of Asaph) with cymbals, took their places to praise the LORD, as prescribed by David king of Israel.

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With praise and thanksgiving they sang to the LORD: "He is good; his love toward Israel endures forever." And all the people gave a great shout of praise to the LORD,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was laid.

1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But many of the older priests and Levites and family heads, who had seen the former temple, wept aloud when they saw the foundation of this temple being laid, while many others shouted for joy.

13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No one could distinguish the sound of the shouts of joy from the sound of weeping, because the people made so much noise. And the sound was heard far away.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1~7).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일곱 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1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 번째 달에는 날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의미가 깊은 달에 함께 모여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2~4절).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6절). 부족한 것이 많은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완벽함보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의 본질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공동체가 앞으로 이어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른 신앙공동체로 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업입니다.

2. 성전의 기초가 쌓입니다(8~13).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둘째 해의 둘째 달이 되어서야 건축을 시작합니다. 둘째 달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달이기도 합니다(왕상 6:1).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모두 성전 재건을 위해 일합니다. 이들은 일제히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9절).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저마다의 위치에서 준비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11절) 다시 쌓여 올려지는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영광을 아는 나이가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도리어 울며 통곡합니다(12절). 그동안 겪은 수모에 대한 아픔과 다시 찾은 성전에 대한 감사, 기대보다 못한 모습에 대한 한탄 등의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통곡의 소리와 환성이 한데 모여 큰 울림이 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한 곳에 모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귀환자들처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2. 성전 재건의 시작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말처럼 고난과 회복이 반복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48:1~3, 8 [1]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2]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 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 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3]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8]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9 — 목요일

에스라 4:1~10

오늘의 찬송 43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말씀 속으로

1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When the enemies of Judah and Benjamin heard that the exiles were building a temple f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2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they came to Zerubbabel and to the heads of the families and said, "Let us help you build because, like you, we seek your God and have been sacrificing to him since the time of Esarhaddon king of Assyria, who brought us here."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But Zerubbabel, Joshua and the rest of the heads of the families of Israel answered, "You have no part with us in building a temple to our God. We alone will build it f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as King Cyrus, the king of Persia, commanded us."

4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Then the peoples around them set out to discourage the people of Judah and make them afraid to go on building.

5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They bribed officials to work against them and frustrate their plans during the entire reign of Cyrus king of Persia and down to the reign of Darius king of Persia.

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At the beginning of the reign of Xerxes, they lodged an accusation against the people of Judah and Jerusalem.

7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And in the days of Artaxerxes king of Persia, Bishlam, Mithredath, Tabeel and the rest of his associates wrote a letter to Artaxerxes. The letter was written in Aramaic script and in the Aramaic language.

8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Rehum the commanding officer and Shimshai the secretary wrote a letter against Jerusalem to Artaxerxes the king as follows:

9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Rehum the commanding officer and Shimshai the secretary,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ir associates - the judges, officials and administrators over the people from Persia, Uruk and Babylon, the Elamites of Susa,

10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and the other people whom the great and honorable Ashurbanipal deported and settled in the city of Samaria and elsewhere in Trans-Euphrat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1~6).

귀환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에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에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지역의 이방 민족들과 강제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자들로서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은 성전 건축을 도우려 하기 보다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족장들은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3절). 이스라엘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을 거절당한 그들은 이때로부터 건축을 방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기꺼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방해는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이어집니다(5절). 그리고 아하수에로왕이 즉위할 때에는 성전 짓는 것에 대하여 고발하는 글을 올립니다(6절).

2. 고발하는 자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7~10).

아하수에로왕 다음 아닥사스다왕이 집권할 때에도 고발이 이어집니다. 대적들은 귀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공식적인 조치로 완전히 막고자 합니다. 포로 귀환 이전 그 땅에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착해 온 이들에게 이스라엘 귀환자들은 불편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것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르훔과 심새로 대표되는 일련의 무리들은 귀환자들을 아닥사스다왕에게 참소합니다. '방백'인 르훔은 사마리아의 고위직 관료이며, '서기관'인 심새는 공문서나 부동산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뒤로 이어지는 다양한 고발자 무리의 명단은 2장의 귀환자 명단과 대척을 이룹니다. 8절부터 6장 18절까지의 본문은 실제로 당시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엄중하게 일을 다루는 것으로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의 심각한 상황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 건축이 상당한 시간 동안 방해를 받고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쌓아 올리는 데에도 꾸준한 방해와 걸림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시다.

2. 하나님의 영광의 재회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멈추는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7:33~34, 39~40 33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 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
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34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
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39 의인의 구원은 주님
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40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
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0 금요일

에스라 4:11~24

오늘의 찬송 300 내 맘이 낙심되며

말씀 속으로

11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This is a copy of the letter they sent him.) To King Artaxerxes, From your servants in Trans-Euphrates:

12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The king should know that the people who came up to us from you have gone to Jerusalem and are rebuilding that rebellious and wicked city. They are restoring the walls and repairing the foundations.

13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Furthermore, the king should know that if this city is built and its walls are restored, no more taxes, tribute or duty will be paid, and eventually the royal revenues will suffer.

14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차마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Now since we are under obligation to the palace and it is not proper for us to see the king dishonored, we are sending this message to inform the king,

15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so that a search may be made in the archives of your predecessors. In these records you will find that this city is a rebellious city, troublesome to kings and provinces, a place with a long history of sedition. That is why this city was destroyed.

16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We inform the king that if this city is built and its walls are restored, you will be left with nothing in Trans-Euphrates.

17 왕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새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The king sent this reply: To Rehum the commanding officer, Shimshai the secretary and the rest of their associates living in Samaria and elsewhere in Trans-Euphrates: Greetings.

10
—
금

18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The letter you sent us has been read and translated in my presence.

19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I issued an order and a search was made, and it was found that this city has a long history of revolt against kings and has been a place of rebellion and sedition.

20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Jerusalem has had powerful kings ruling over the whole of Trans-Euphrates, and taxes, tribute and duty were paid to them.

21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Now issue an order to these men to stop work, so that this city will not be rebuilt until I so order.

22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Be careful not to neglect this matter. Why let this threat grow, to the detriment of the royal interests?

23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As soon as the copy of the letter of King Artaxerxes was read to Rehum and Shimshai the secretary and their associates, they went immediately to the Jews in Jerusalem and compelled them by force to stop.

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Thus the work on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came to a standstill until the second year of the reign of Darius king of Persia.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대적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11~16).

대적들이 아닥사스다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상소문의 주된 내용은 성읍 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12절). 그들은 이스라엘이 성읍을 건축하고 나면 왕에게 세금과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며 왕이 강 서쪽 영지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참소합니다(13, 16절). 근거로 과거 역사를 제시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래부터 반역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15절). 그러므로 빠른 시일 내로 이스라엘의 재건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제국의 일부를 잃을 것이기에 그들을 제압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소문에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내용은 가히 과장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발은 정치·경제면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의도에 기인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반역을 제압해야 하고 국고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왕에게 그들의 내용은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17~24).

상소문에 대하여 아닥사스다왕의 회신이 옵니다. 대적들의 고발은 즉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반역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 분위기에 민감했던 아닥사스다왕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상소문을 받고 즉각 그들의 주장을 조사하며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 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19절) 또한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곧 이스라엘의 왕들이 강 서쪽 지역에서 주변에 조공과 세금을 거두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큰 세력이 다시 세워진다면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아닥사스다왕은 이스라엘의 건축 중단을 결정합니다. 그는 회신에서 재건 중단 지시와 함께 대적들에게 착오 없이 일을 확실하게 할 것을 명합니다(21절). 왕의 조서를 받은 대적들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력으로 공사를 멈춥니다. 귀환의 기쁨도 잠시, 주변 민족들의 방해 아래 재건이 멈추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대적들의 상소문과 왕의 회신이 오고 가는 장면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때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2.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시점이 오기도 합니다.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1~6 1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3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4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5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6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1 — 토요일

예레미야 32:36~33:13

오늘의 찬송 250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말씀 속으로

36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You are saying about this city, 'By the sword, famine and plague it will be given into the hands of the king of Babylon'; but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37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I will surely gather them from all the lands where I banish them in my furious anger and great wrath;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place and let them live in safety.

38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I will give them singleness of heart and action, so that they will always fear me and that all will then go well for them and for their children after them.

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them: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them, and I will inspire them to fear me, so that they will never turn away from me.

41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I will rejoice in doing them good and will assuredly plant them in this land with all my heart and soul.

42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As I have brought all this great calamity on this people, so I will give them all the prosperity I have promised them.

43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Once more fields will be bought in this land of which you say, 'It is a desolate waste, without people or animals, for it has been given into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11
—
토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Fields will be bought for silver, and deeds will be signed, sealed and witnessed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in the villages around Jerusalem, in the towns of Judah and in the towns of the hill country, of the western foothills and of the Negev, because I will restore their fortunes, declares the LORD."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While Jeremiah was still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 second time:

2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he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and established it - the LORD is his name: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For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about the houses in this city and the royal palaces of Judah that have been torn down to be used against the siege ramps and the sword

5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in the fight with the Babylonians: 'They will be filled with the dead bodies of the people I will slay in my anger and wrath. I will hide my face from this city because of all its wickedness.

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Nevertheless, I will bring health and healing to it; I will heal my people and will let them enjoy abundant peace and security.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I will bring Judah and Israel back from captivity and will rebuild them as they were before.

33:2 일을 행하시는
'행한다'는 동사는 분사로서 3인칭 여성 단수 접미사가 붙어 있는데, 이는 특별히 '땅'을 가리킨다. 따라서 '땅을 만드시는'으로 된 번역이 많다.

11
—
토

8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I will cleanse them from all the sin they have committed against me and will forgive all their sins of rebellion against me.

9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Then this city will bring me renown, joy, praise and honor before all nations on earth that hear of all the good things I do for it; and they will be in awe and will tremble at the abundant prosperity and peace I provide for it.'

10-1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say about this place, "It is a desolate waste, without people or animals." Yet in the towns of Judah and the streets of Jerusalem that are deserted, inhabited by neither people nor animals, there will be heard once more the sounds of joy and gladness, the voices of bride and bridegroom, and the voices of those who bring thank offerings to the house of the LORD, saying, "Give thanks to the LORD Almighty, for the LORD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For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the land as they were before,' says the LORD.

1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 떼를 눕게 할 것이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this place, desolate and without people or animals - in all its towns there will again be pastures for shepherds to rest their flocks.

13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In the towns of the hill country, of the western foothills and of the Negev, in the territory of Benjamin, in the villages around Jerusalem and in the towns of Judah, flocks will again pass under the hand of the one who counts them,' says the LORD.

33:13 평지
스펠라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36~44).

이스라엘에게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이 마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곳에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37절).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컸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이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이상 수치가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38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돌아오게 되며 땅과 정신과 육체의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2.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1~1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선포됩니다(2절). 여기서 '일'은 3인칭 여성형으로 보통 '땅'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백성들이 돌아올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3절)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강한 타격으로 인해 상처와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다시 영광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9절) 그때에는 다시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는 잔칫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16:8~9). 또한 좋은 목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백성들의 옛 허물이 벗겨지고 회복될 때가 올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백성들의 회복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고백합시다.

2.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를 사모하며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8:1~6 [1]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2]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3]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4]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5]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6]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불꽃으로 피우고 간 생

글 장 춘 (은퇴장로)

한평생 한결같이 뜨겁게 사시다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불꽃 피우고 가신 故 홍인기 장로님

공직에서 대기업에서 대학강단에서
예배당 안팎에서 피어나던 그 불꽃
언제나 눈부시고 경이로웠습니다

티 없이 밝고 풍성한 목소리
절창 '그리운 금강산' 또 듣고 싶습니다.
평생 심지에 마르지 않는 기름
누가 채워 주셨는지 알 듯 합니다

님이 이 땅에 뿌려 놓은 불씨들
새봄 맞아 개화하니 안심하소서

소망동산 한 줌 재 손에 받쳐 들고
아직 식지 않은 불꽃 온기
오래 오래 가슴에 담아 두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샬롬 샬롬!

12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12~18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시편 25: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3 — 월요일

예레미야 33:14~34:7

오늘의 찬송 216 성자의 귀한 몸

말씀 속으로

1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fulfill the good promise I made to the people of Israel and Judah.

5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In those days and at that time I will make a righteous Branch sprout from David's line; he will do what is just and right in the land.

16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In those days Judah will be saved and Jerusalem will live in safety. This is the name by which it will be called: The LORD Our Righteous Savior.'

17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David will never fail to have a man to sit on the throne of Israel,

18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nor will the Levitical priests ever fail to have a man to stand before me continually to offer burnt offerings, to burn grain offerings and to present sacrifices.'"

19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20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This is what the LORD says: 'If you can break my covenant with the day and my covenant with the night, so that day and night no longer come at their appointed time,

21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then my covenant with David my servant - and my covenant with the Levites who are priests ministering before me - can be broken and David will no longer have a descendant to reign on his throne.

22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I will make the descendants of David my servant and the Levites who minister before me as countles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measure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13
—
월

23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24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Have you not noticed that these people are saying, 'The LORD has rejected the two kingdoms he chose'? So they despise my people and no longer regard them as a nation.

2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This is what the LORD says: 'If I have not made my covenant with day and night and established the laws of heaven and earth,

26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then I will reject the descendants of Jacob and David my servant and will not choose one of his sons to rule over the descendants of Abraham, Isaac and Jacob. For I will restore their fortunes and have compassion on them.'"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While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and all his army and all the kingdoms and peoples in the empire he ruled were fighting against Jerusalem and all its surrounding towns, this word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Go to Zedekiah king of Judah and tell him, 'This is what the LORD says: I am about to give this city into the hands of the king of Babylon, and he will burn it down.

3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You will not escape from his grasp but will surely be captured and given into his hands. You will see the king of Babylon with your own eyes, and he will speak with you face to face. And you will go to Babylon.

4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Yet hear the LORD's promise to you, Zedekiah king of Judah. This is what the LORD says concerning you: You will not die by the sword;

13
—
월

5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you will die peacefully. As people made a funeral fire in honor of your predecessors, the kings who ruled before you, so they will make a fire in your honor and lament, "Alas, master!" I myself make this promise, declares the LORD.'"

6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Then Jeremiah the prophet told all this to Zedekiah king of Judah, in Jerusalem,

7 그 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while the army of the king of Babylon was fighting against Jerusalem and the other cities of Judah that were still holding out - Lachish and Azekah. These were the only fortified cities left in Judah.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14~26).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3절에서 말씀하셨던 한 의로운 가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나게 되면 그분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미 깨어졌지만,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며 다시 회복의 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의지로 새로워진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불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16절). 하나님께서 앉히신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의 언약은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깨진 언약이 되었지만, 새 언약은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한 치의 흠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통치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2. 유다의 멸망이 목전에 있습니다(1~7).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시드기야왕은 느부갓네살왕에게 넘겨져 붙잡히고 유다의 성읍들은 불사지름을 당할 것이 선포됩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드기야왕은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으며,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던 여호야김왕과 달리 죽음의 애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5절). 그러나 시드기야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던 예레미야는 이 예언으로 인해 감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32:3~5) 그때에는 유다에 견고한 성읍들 가운데서 남쪽에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은 상태였습니다(7절). 여러 성읍들이 함락되고 남은 요새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저항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성읍은 애굽과의 주요 교역로에 자리 잡고 있는 전략상 요충지입니다.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의 함락을 막기 위해 애굽이 군대 지원을 보내 유다가 잠시 잠깐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고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도리어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멸망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2. 사람이 성읍을 아무리 견고히 지을 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무너질 성읍이 아닌 영원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1:1~6 [1]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2]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3]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4]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5] 주님,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 왔습니다. [6]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4

화요일

에스라 5:1~17

오늘의 찬송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말씀 속으로

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Now Haggai the prophet and Zechariah the prophet, a descendant of Iddo, prophesied to the Jews in Judah and Jerusalem in the name of the God of Israel, who was over them.

2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Then Zerubbabel son of Shealtiel and Joshua son of Jozadak set to work to rebuild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And the prophets of God were with them, supporting them.

3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At that time Tattenai, governor of Trans-Euphrates, and Shethar-Bozenai and their associates went to them and asked, "Who authorized you to rebuild this temple and to finish it?"

4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They also asked, "What are the names of those who are constructing this building?"

5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But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s, and they were not stopped until a report could go to Darius and his written reply be received.

6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This is a copy of the letter that Tattenai, governor of Trans-Euphrates, and Shethar-Bozenai and their associates, the officials of Trans-Euphrates, sent to King Darius.

7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The report they sent him read as follows: To King Darius: Cordial greetings.

8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The king should know that we went to the district of Judah, to the temple of the great God. The people are building it with large stones and placing the timbers in the walls. The work is being carried on with diligence and is making rapid progress under their direction.

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We questioned the elders and asked them, "Who authorized you to rebuild this temple and to finish it?"

14
—
화

10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We also asked them their names, so that we could write down the names of their leaders for your information.

11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This is the answer they gave us: "We are the servants of the God of heaven and earth, and we are rebuilding the temple that was built many years ago, one that a great king of Israel built and finished.

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But because our ancestors angered the God of heaven, he gave them into the hands of Nebuchadnezzar the Chaldean, king of Babylon, who destroyed this temple and deported the people to Babylon.

13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However,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Babylon, King Cyrus issued a decree to rebuild this house of God.

14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He even removed from the temple of Babylon the gold and silver articles of the house of God, which Nebuchadnezzar had taken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and brought to the temple in Babylon. Then King Cyrus gave them to a man named Sheshbazzar, whom he had appointed governor,

15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and he told him, 'Take these articles and go and deposit them in the temple in Jerusalem. And rebuild the house of God on its site.'

16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So this Sheshbazzar came and laid the foundations of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From that day to the present it has been under construction but is not yet finished."

17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Now if it pleases the king, let a search be made in the royal archives of Babylon to see if King Cyrus did in fact issue a decree to rebuild this house of God in Jerusalem. Then let the king send us his decision in this matt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1~5).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소개되지는 않지만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의하면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려 뒤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2절). 성전이 중단되고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사이의 기간은 약 15~1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시간 동안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귀환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허탈감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다시 서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반발 세력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인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동관들이 방문하며 건축 허가 여부와 재건하는 자들의 명단을 확인합니다(3~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어 재개된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됩니다.

2. 닷드내가 서신을 보냅니다(6~17).

총독 닷드내와 동료들이 다리오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성전 건축의 현장을 보고하며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 형통한 상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큰 돌과 나무로 성전을 짓고 있으며 공사가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닷드내와 동료들은 성전 건축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누가 시작했는지,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지, 공사의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의 증언을 함께 보고에 싣습니다. 그 내용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전한 대로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11절). 보고에서 유다 지도자들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은 닷드내가 유다 백성들을 어느 정도 존중한 것으로 추측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일과 고레스왕의 칙령을 받고 성전을 세우던 일들을 전합니다. 닷드내는 그들의 증언대로 다리오왕에게 고레스 칙령의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17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성전 건축 중단과 재개되는 사이의 시간은 본문에서는 짧게 지나가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끝없이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모든 절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2. 다시 재개된 공사에도 어김없이 위협 세력이 등장합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21:1~6 [1]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3]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6]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5 에스라 6:1~12

수요일

오늘의 찬송 86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말씀 속으로

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King Darius then issued an order, and they searched in the archives stored in the treasury at Babylon.

2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A scroll was found in the citadel of Ecbatana in the province of Media, and this was written on it: Memorandum:

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In the first year of King Cyrus, the king issued a decree concerning the temple of God in Jerusalem: Let the temple be rebuilt as a place to present sacrifices, and let its foundations be laid. It is to be sixty cubits high and sixty cubits wide,

4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with three courses of large stones and one of timbers. The costs are to be paid by the royal treasury.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Also, the gold and silver articles of the house of God, which Nebuchadnezzar took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and brought to Babylon, are to be returned to their places in the temple in Jerusalem; they are to be deposited in the house of God.

6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Now then, Tattenai, governor of Trans-Euphrates, and Shethar-Bozenai and you other officials of that province, stay away from there.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Do not interfere with the work on this temple of God. Let the governor of the Jews and the Jewish elders rebuild this house of God on its site.

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Moreover, I hereby decree what you are to do for these elders of the Jews in the construction of this house of God: Their expenses are to be fully paid out of the royal treasury, from the revenues of Trans-Euphrates, so that the work will not stop.

15
—
수

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Whatever is needed - young bulls, rams, male lambs for burnt offerings to the God of heaven, and wheat, salt, wine and olive oil, as requested by the priests in Jerusalem - must be given them daily without fail,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so that they may offer sacrifices pleasing to the God of heaven and pray for the well-being of the king and his sons.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Furthermore, I decree that if anyone defies this edict, a beam is to be pulled from their house and they are to be impaled on it. And for this crime their house is to be made a pile of rubble.

12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May God, who has caused his Name to dwell there, overthrow any king or people who lifts a hand to change this decree or to destroy this temple in Jerusalem. I Darius have decreed it. Let it be carried out with diligen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고레스왕의 조서가 발견됩니다(1~5).

성전 건축이 재개되자 닷드내와 일행이 보낸 서신을 다리오왕이 받고 옛 문서들을 조사합니다. 보물 전각에서 찾게 된 옛 문서에서 고레스왕이 집권하던 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허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조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건축 허가와 건축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령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고레스왕이 탈취된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도록 명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건될 새로운 성전의 크기는 높이와 너비가 육십 규빗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길이가 육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인 것에 비하면 더 큰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왕상 6:2). 이와 같은 조서의 내용은 고레스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이 조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 예상됩니다. 올가미와 같았던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멈추고 성전 재건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다리오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6~12).

다리오왕은 고레스왕의 조서를 확인한 후에 옛 칙령의 뜻을 이어 가기로 합니다. 성전 건축의 방해를 금하고 재건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충당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9절) 수송아지, 숫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등 요구하는 대로 경비를 날마다 제공하여 줄 것을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이 내용을 누구도 변경하거나 어길 수 없도록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오왕이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의도는 순전한 마음보다는 정치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그를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이 점차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치적 의도까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다리오왕에 와서야 이스라엘을 향한 억측이 멈추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리오왕을 볼 때 내가 뉘우쳐야 할 것이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2.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자 다리오왕까지 움직이며 성전 재건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있는 믿음을 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5~9 5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8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9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6 목요일

에스라 6:13~22

오늘의 찬송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 속으로

13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Then, because of the decree King Darius had sent, Tattenai, governor of Trans-Euphrates, and Shethar-Bozenai and their associates carried it out with diligence.

14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So the elders of the Jews continued to build and prosper under the preaching of Haggai the prophet and Zechariah, a descendant of Iddo. They finished building the temple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God of Israel and the decrees of Cyrus, Darius and Artaxerxes, kings of Persia.

15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The temple was completed on the third day of the month Adar, in the sixth year of the reign of King Darius.

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Then the people of Israel - the priests, the Levites and the rest of the exiles - celebrated the dedication of the house of God with joy.

17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For the dedication of this house of God they offered a hundred bulls, two hundred rams, four hundred male lambs and, as a sin offering for all Israel, twelve male goats, one for each of the tribes of Israel.

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And they installed the priests in their divisions and the Levites in their groups for the service of God at Jerusalem,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Moses.

19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On the four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the exiles celebrated the Passover.

16
—
목

2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The priests and Levites had purified themselves and were all ceremonially clean. The Levites slaughtered the Passover lamb for all the exiles, for their relatives the priests and for themselves.

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So the Israelites who had returned from the exile ate it, together with all who had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unclean practices of their Gentile neighbors in order to seek the LORD, the God of Israel.

22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For seven days they celebrated with joy the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because the LORD had filled them with joy by changing the attitude of the king of Assyria so that he assisted them in the work on the house of God, the God of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성전 재건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13~18).

다리오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막으려는 세력이 멈추고 도리어 도움을 주는 조치들이 일어납니다. 왕의 조서를 받은 닷드내와 동료들은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준행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르며 성전 건축에 다시 힘을 냅니다. 성전 재건 사업은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성전 건축을 끝내게 됩니다(14절). 성전 건축이 끝난 때는 다리오왕 육 년 아달 월 삼 일입니다. 중단이 다리오왕 2년까지 되었다는 앞선 기록에 따르면 재건은 약 4년 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4:24). 오랜 포로기간 뒤에 성전 재건에 한껏 부풀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중단과 함께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성전의 완성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완성 후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립니다. 수소와 숫양 및 어린 양을 드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대로 열두 마리의 숫염소를 바칩니다. 이는 마치 가장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온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2.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킵니다(19~22).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 월을 보내고 다음 새해 첫 절기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지키는 유월절은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조상들의 율법에 따라 몸을 정결하게 하며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20절).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일제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도 함께 이방의 풍습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며 하나가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세워진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의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절기를 보냅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허락하신 땅에 다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타국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은 1장의 첫 부분과 수미상관을 이루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가장 힘든 시절에 힘이 되었던 말씀이나 찬양, 예배와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성전 재건 후 하나님께 즐거이 봉헌식을 드린 백성들처럼 다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려 봅시다.

2. 포로 귀환 후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별하고 서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4:10~12 [10]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11]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12]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7 에스라 7:1~10

금요일

오늘의 찬송 413 내 평생에 가는 길

말씀 속으로

1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After these things, during the reign of Artaxerxes king of Persia, Ezra son of Seraiah, the son of Azariah, the son of Hilkiah,

2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 손이요 아히둡의 육대 손이요

the son of Shallum, the son of Zadok, the son of Ahitub,

3 아마랴의 칠대 손이요 아사랴의 팔대 손이요 므라욧의 구대 손이요

the son of Amariah, the son of Azariah, the son of Meraioth,

4 스라히야의 십대 손이요 웃시엘의 십일대 손이요 북기의 십이대 손이요

the son of Zerahiah, the son of Uzzi, the son of Bukki,

5 아비수아의 십삼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십오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십육대 손이라

the son of Abishua, the son of Phinehas, the son of Eleazar, the son of Aaron the chief priest -

6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this Ezra came up from Babylon. He was a teacher well versed in the Law of Moses, which the LORD, the God of Israel, had given. The king had granted him everything he asked, for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on him.

7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Some of the Israelites, including priests, Levites, musicians, gatekeepers and temple servants, also came up to Jerusalem in the seventh year of King Artaxerxes.

8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Ezra arrived in Jerusalem in the fifth month of the seventh year of the king.

9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He had begun his journey from Babylon on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and he arrived in Jerusalem on the first day of the fifth month, for the gracious hand of his God was on him.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For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and observance of the Law of the LORD, and to teaching its decrees and laws in Israel.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에스라가 등장합니다(1~5).

성전 재건 후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닥사스다왕 7년 때의 일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1차 귀환자들이 역사의 무대 뒤로 물러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어 갈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말라기서를 보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냉담하며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환자들에게는 귀환 때의 열정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열정을 볼 수 없을뿐더러, 그들에게 말씀과 믿음의 삶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아사랴'의 줄임말로 '여호와께서 도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표류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제2의 모세로 여겨지는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는데, 이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개혁의 길로 이끌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 줍니다.

2. 에스라가 소개됩니다(6~10).

족보 뒤에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며,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여기서 '학자'는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서 그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6절). 그는 이스라엘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정치·경제 문제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형통함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율례와 규례를 가르칩니다(10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세대가 지나자 신앙의 열정을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데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2.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성전 재건 이후 말씀 개혁을 이루십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도 예배와 기도,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이 균형 있게 세워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19:13~18 [13]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14]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15]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16]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17]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활력이 넘치게 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18]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18 예레미야 34:8~22

토요일

오늘의 찬송 552 아침 해가 돋을 때

말씀 속으로

8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The word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after King Zedekiah had made a covenant with all the people in Jerusalem to proclaim freedom for the slaves.

9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Everyone was to free their Hebrew slaves, both male and female; no one was to hold a fellow Hebrew in bondage.

10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So all the officials and people who entered into this covenant agreed that they would free their male and female slaves and no longer hold them in bondage. They agreed, and set them free.

11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But afterward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took back the slaves they had freed and enslaved them again.

12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1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I made a covenant with your ancestors when I brought them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I said,

14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칠 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Every seventh year each of you must free any fellow Hebrews who have sold themselves to you. After they have served you six years, you must let them go free.' Your ancestors, however, did not listen to me or pay attention to me.

15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Recently you repented and did what is right in my sight: Each of you proclaimed freedom to your own people. You even made a covenant before me in the house that bears my Name.

34:14 네게
스스로 네게

18
—
토

16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But now you have turned around and profaned my name; each of you has taken back the male and female slaves you had set free to go where they wished. You have forced them to become your slaves again.

17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have not obeyed me; you have not proclaimed freedom to your own people. So I now proclaim 'freedom' for you, declares the LORD - 'freedom' to fall by the sword, plague and famine. I will make you abhorrent 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18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Those who have violated my covenant and have not fulfilled the terms of the covenant they made before me, I will treat like the calf they cut in two and then walked between its pieces.

19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The leaders of Judah and Jerusalem, the court officials, the priests and all the people of the land who walked between the pieces of the calf,

20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I will deliver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who want to kill them. Their dead bodies will become food for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21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I will deliver Zedekiah king of Judah and his officials into the hands of their enemies who want to kill them, to the army of the king of Babylon, which has withdrawn from you.

22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I am going to give the order,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bring them back to this city. They will fight against it, take it and burn it down. And I will lay waste the towns of Judah so no one can live there."

34:17 흩어지게 할 것이며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며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형제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8~16).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고관과 백성들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종들을 풀어 주었습니다(10절). 불순종을 일삼던 이들이 종들을 풀어 주며 갑작스럽게 언약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를 주었던 자들을 데리고 와 다시 종으로 삼습니다(11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상황이 풀리니 형제에게 준 자유를 다시 빼앗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랐던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회개는 왜 그렇게 짧았을까요? 상황이 나아지자 원래의 불의한 모습을 이어 가는 그들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2. 심판이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17~22).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심판의 이유는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형제들에게 잠깐 자유를 주고 만 것은 언약을 제대로 지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언약의 의도를 비껴가며 그들의 악한 모습을 더 보여 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과 평안의 수단처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위반한 그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며 원수들의 손에 넘겨 버릴 것을 선포하십니다(20절). 언약을 잠깐 수행함으로 힘을 얻고자 했던 유다 백성들이 도리어 잘못을 범함으로 지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애굽의 군대를 대적하고자 예루살렘에서 퇴각하여 회생의 기회가 온 듯합니다(37:5). 그러나 백성들이 종들을 다시 불러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다시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22절). 그리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도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고 말 것입니다(21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동족의 종들을 풀어 주다가 잠깐의 평화가 오자 종들을 다시 불러 자유를 뺏습니다.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겸손해 지기를 간구합시다.

2.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9:10~14 [10]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11]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12]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13]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에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성령 -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글 **김경래** (부목사)

부활절로부터 7주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성령강림주일을 맞는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이다. 이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출신 지역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처럼 최초의 성령강림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였기에, 방언은 성령 받음의 표지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때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오해가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4~11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의 하나일 뿐, 성령 받았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성령이 내주하며 그의 삶을 이끄시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앞 절인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모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12:3b)

만물의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보다 더 크고 무한한 분이시다. 시편 139:7~10에서 찬양하듯이 하나님은 하늘부터 스올까지 모든 곳에 계신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6절은 이렇게 찬양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재한 곳은 이 세상에 없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는 질문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까지 하였지만(삼상 10:10),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삼상 15:22~23),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삼상 16:14).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후(삼상16:13),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갔기에 범죄하였을 때에도 회개할 수 있었고 성령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시 51:11).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사실 더 필요한 질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라기 보다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는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방언을 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조금 더 넓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행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인가?

가장 성령에 충만했던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 중에 삼위일체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 시험을 받으신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 이끌려 산다. 그 이끄심이 광야의 길이어도, 시험의 장소여도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하나씩 맺어 간다(갈 5:22~23). 그것은 곧 성화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며 기대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19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19~25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1: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 월요일

예레미야 35:1~19

오늘의 찬송 452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말씀 속으로

1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This is the word that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during the reign of Jehoiaki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2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Go to the Rekabite family and invite them to come to one of the side room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give them wine to drink."

3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So I went to get Jaazaniah son of Jeremiah, the son of Habazziniah, and his brothers and all his sons - the whole family of the Rekabites.

4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I brought them into the house of the LORD, into the room of the sons of Hanan son of Igdaliah the man of God. It was next to the room of the officials, which was over that of Maaseiah son of Shallum the doorkeeper.

5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Then I set bowls full of wine and some cups before the Rekabites and said to them, "Drink some wine."

6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But they replied, "We do not drink wine, because our forefather Jehonadab son of Rekab gave us this command: 'Neither you nor your descendants must ever drink wine.

7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Also you must never build houses, sow seed or plant vineyards; you must never have any of these things, but must always live in tents. Then you will live a long time in the land where you are nomads.'

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We have obeyed everything our forefather Jehonadab son of Rekab commanded us. Neither we nor our wives nor our sons and daughters have ever drunk wine

20
—
월

9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or built houses to live in or had vineyards, fields or crops.

10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We have lived in tents and have fully obeyed everything our forefather Jehonadab commanded us.

11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But when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invaded this land, we said, 'Come, we must go to Jerusalem to escape the Babylonian and Aramean armies.' So we have remained in Jerusalem."

12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saying:

1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Go and tell the people of Judah and those living in Jerusalem, 'Will you not learn a lesson and obey my words?' declares the LORD.

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Jehonadab son of Rekab ordered his descendants not to drink wine and this command has been kept. To this day they do not drink wine, because they obey their forefather's command. But I have spoken to you again and again, yet you have not obeyed me.

15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
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Again and again I sent all my servants the prophets to you. They said, "Each of you must turn from your wicked ways and reform your actions; do not follow other gods to serve them. Then you will live in the land I have given to you and your ancestors." But you have not paid attention or listened to me.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The descendants of Jehonadab son of Rekab have carried out the command their forefather gave them, but these people have not obeyed me.'

20
—
월

1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Go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Listen! I am going to bring on Judah and on everyone living in Jerusalem every disaster I pronounced against them. I spoke to them, but they did not listen; I called to them, but they did not answer.'"

18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Then Jeremiah said to the family of the Rekabites,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You have obeyed the command of your forefather Jehonadab and have followed all his instructions and have done everything he ordered.'

1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Jehonadab son of Rekab will never fail to have a descendant to serve m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레갑 사람들이 신실함을 보여 줍니다(1~1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 포도주를 건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2절).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폐위시킨 예후의 혁명에 동참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여호나답)의 후손입니다(왕하 10:15).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변방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왜 그들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5절).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를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8절) 레갑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은 채 명령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충분히 땅과 곡식을 가질 기회가 수차례 주어졌겠지만 그들은 명령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 불순종하는 유다는 책망을 받습니다(12~19).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본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13절) 그리고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으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14절). 요나답은 한 번 전한 명령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수차례 예언자들을 보내 거듭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순종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이방신을 떠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악취가 나는 삶이었으며 반역을 일삼는 삶이었습니다. 수차례의 권고와 불순종 뒤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엄수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던 레갑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반역의 백성들에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 신실함의 예시로 레갑 사람들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킨 요나답의 명령이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유다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악한 길에 붙잡아 두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혹과 욕망, 무지와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8:25~28 25 주님,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27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28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1 화요일

에스라 7:11~28

오늘의 찬송 302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말씀 속으로

11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This is a copy of the letter King Artaxerxes had given to Ezra the priest, a teacher of the Law, a man learned in matters concerning the commands and decrees of the LORD for Israel: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Artaxerxes, king of kings, To Ezra the priest, teacher of the Law of the God of heaven: Greetings.

13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Now I decree that any of the Israelites in my kingdom, including priests and Levites, who volunteer to go to Jerusalem with you, may go.

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You are sent by the king and his seven advisers to inquire about Judah and Jerusalem with regard to the Law of your God, which is in your hand.

15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Moreover, you are to take with you the silver and gold that the king and his advisers have freely given to the God of Israel, whose dwelling is in Jerusalem,

16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together with all the silver and gold you may obtain from the province of Babylon, as well as the freewill offerings of the people and priests for the temple of their God in Jerusalem.

17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With this money be sure to buy bulls, rams and male lambs, together with their grain offerings and drink offerings, and sacrifice them on the altar of the temple of your God in Jerusalem.

21
—
화

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You and your fellow Israelites may then do whatever seems best with the rest of the silver and gold,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your God.

19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Deliver to the God of Jerusalem all the articles entrusted to you for worship in the temple of your God.

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And anything else needed for the temple of your God that you are responsible to supply, you may provide from the royal treasury.

21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Now I, King Artaxerxes, decree that all the treasurers of Trans-Euphrates are to provide with diligence whatever Ezra the priest, the teacher of the Law of the God of heaven, may ask of you -

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도 백 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up to a hundred talents of silver, a hundred cors of wheat, a hundred baths of wine, a hundred baths of olive oil, and salt without limit.

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Whatever the God of heaven has prescribed, let it be done with diligence for the temple of the God of heaven. Why should his wrath fall on the realm of the king and of his sons?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You are also to know that you have no authority to impose taxes, tribute or duty on any of the priests, Levites, musicians, gatekeepers, temple servants or other workers at this house of God.

25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And you, Ezra, in accordance with the wisdom of your God, which you possess, appoint magistrates and judges to administer justice to all the people of Trans-Euphrates - all who know the laws of your God. And you are to teach any who do not know them.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Whoever does not obey the law of your God and the law of the king must surely be punished by death, banishment, confiscation of property, or imprisonment.

21
—
화

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Praise be to the LORD, the God of our ancestors, who has put it into the king's heart to bring honor to the house of the LORD in Jerusalem in this way

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and who has extended his good favor to me before the king and his advisers and all the king's powerful officials. Because the hand of the LORD my God was on me, I took courage and gathered leaders from Israel to go up with m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아닥사스다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11~26).

아닥사스다왕의 조서가 에스라에게 내려집니다. 조서에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한다면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13절). 그리고 예물들을 가지고 가되 왕과 보좌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도 함께 가지고 갈 것을 명합니다(14~15절). 은과 금으로는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성전을 위하여 써야할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허가해 줍니다(20절). 또한 강 서쪽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원하도록 명합니다(21절). 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강력히 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라에게 백성을 잘 재판하고 율법을 가르칠 것을 명합니다(25절). 아닥사스다왕은 율법을 자신의 명령을 잘 전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명령은 도리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기회로 바뀝니다. 결국 그의 조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2. 에스라가 주님을 찬양합니다(27~28).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왕의 적극적인 지지와 조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길과 왕들에게 받은 도움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라의 소개와 아닥사스다왕의 조서 이후 에스라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부름받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의 돌아옴과 형통함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귀환이 곧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의 희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므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28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스라의 귀환 이후 앞으로 이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역사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아닥사스다왕을 통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에스라와 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구석구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를 드립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77:16~20 16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뵈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뵈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 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17 구름이 물을 쏟아 내고, 하늘이 천둥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
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18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
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19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
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20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 떼처럼, 모세와 아론
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2
수요일

에스라 8:1~14

오늘의 찬송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말씀 속으로

1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family heads and those registered with them who came up with me from Babylon during the reign of King Artaxerxes:

2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of the descendants of Phinehas, Gershom; of the descendants of Ithamar, Daniel; of the descendants of David, Hattush

3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백오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Shekaniah; of the descendants of Parosh, Zechariah, and with him were registered 150 men;

4 바핫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Pahath-Moab, Eliehoenai son of Zerahiah, and with him 200 men;

5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삼백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Zattu, Shekaniah son of Jahaziel, and with him 300 men;

6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오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Adin, Ebed son of Jonathan, and with him 50 men;

7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Elam, Jeshaiah son of Athaliah, and with him 70 men;

8 스바댜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팔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Shephatiah, Zebadiah son of Michael, and with him 80 men;

9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백십팔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Joab, Obadiah son of Jehiel, and with him 218 men;

22
—
수

10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뱌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육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Bani, Shelomith son of Josiphiah, and with him 160 men;

11 베배 자손 중에서는 베배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이십팔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Bebai, Zechariah son of Bebai, and with him 28 men;

12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백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Azgad, Johanan son of Hakkatan, and with him 110 men;

13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육십 명이요

of the descendants of Adonikam, the last ones, whose names were Eliphelet, Jeuel and Shemaiah, and with them 60 men;

14 비그왜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붓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칠십 명이었느니라

of the descendants of Bigvai, Uthai and Zakkur, and with them 70 me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2차 귀환자 목록이 나열됩니다(1~2).

아닥사스다왕의 조서에 의해서 에스라와 함께 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2차 귀환자의 명단은 2장에 나오는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차 귀환자 목록에서는 일반 백성이 먼저 언급된 후 제사장의 목록이 나오면서 일반 백성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반면 8장의 2차 귀환자 목록은 제사장 자손의 귀환자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1차 귀환에서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도모해야 했다면, 2차 귀환에서는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 목록에는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 이다말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2절). 이는 2차 귀환에서는 왕가의 후손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추측됩니다. 4만 명이 넘는 1차 귀환에 비해서 1,500명 정도 되는 2차 귀환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 여러 자손의 백성들이 함께 올라옵니다(3~14).

3절부터는 일반 백성들의 귀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왕이 조서를 내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던 자들입니다(7:13). 3절에 등장하는 바로스 자손부터 14절의 비그왜 자손까지 총 열두 자손이 소개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1차 귀환과 같이 2차 귀환도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왕이 귀환하는 이들에게 많은 재물을 공급하여 준 장면도 출애굽과 오버랩이 됩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1차 귀환자들과 다른 세력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이미 귀환한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귀환 목록에는 2장의 목록과 겹치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이미 정착한 친척들과 같이 어우러지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감 자손들은 남은 자들까지 모두 자기 성읍으로 귀환하며 포로 전의 모습을 많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13절).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회복의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차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과 믿음의 회복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인내를 가지고 회복과 온전함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36:21~26 [21]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2] 그들의 땅을 당신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3]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4]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5]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3

목요일

에스라 8:15~23

오늘의 찬송 35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말씀 속으로

15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 가에 모으고 거기서 삼 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I assembled them at the canal that flows toward Ahava, and we camped there three days. When I checked among the people and the priests, I found no Levites there.

16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므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So I summoned Eliezer, Ariel, Shemaiah, Elnathan, Jarib, Elnathan, Nathan, Zechariah and Meshullam, who were leaders, and Joiarib and Elnathan, who were men of learning,

17 가시뱌 지방으로 보내어 그 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뱌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 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and I ordered them to go to Iddo, the leader in Kasiphia. I told them what to say to Iddo and his fellow Levites, the temple servants in Kasiphia, so that they might bring attendants to us for the house of our God.

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뱌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십팔 명과

Because the gracious hand of our God was on us, they brought us Sherebiah, a capable man, from the descendants of Mahli son of Levi, the son of Israel, and Sherebiah's sons and brothers, 18 in all;

19 하사뱌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and Hashabiah, together with Jeshaiah from the descendants of Merari, and his brothers and nephews, 20 in all.

20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이백이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 받은 이들이었더라

They also brought 220 of the temple servants - a body that David and the officials had established to assist the Levites. All were registered by name.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There, by the Ahava Canal, I proclaimed a fast, so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and ask him for a safe journey for us and our children, with all our possessions.

23
—
목

22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I was ashamed to ask the king for soldiers and horsemen to protect us from enemies on the road, because we had told the king, "The gracious hand of our God is on everyone who looks to him, but his great anger is against all who forsake him."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So we fasted and petitioned our God about this, and he answered our prayer.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에스라가 레위인을 모읍니다(15~20).

에스라가 2차 귀환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아하와강 강가에 불러 모아 3일 동안 떠날 여정을 준비합니다. 장막에 머물면서 백성들과 제사장을 살펴보니 그곳에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15절). 제사 임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2차 귀환자 모임에서 성전 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1차 귀환 때에도 귀환자 4~5만 명 중에 74명밖에 안 되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2차에는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보다 낮게 여겨지는 직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함, 비교적 안정적인 바벨론의 삶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 11명을 보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16~17절). 이 부름에 몇몇 레위인들이 응답하며 귀환에 동참합니다. 총 레위인 38명과 성전 일을 도울 느디님 사람 220명이 함께 모여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2.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합니다(21~23).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 전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여정이라면 배를 든든히 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에스라가 이처럼 금식을 선포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2차 귀환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닥사스다왕은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고 구하는 것들을 베풀었습니다. 왕에게 구한다면 가는 길을 지켜줄 수 있는 보병과 기병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왕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해 군대를 부탁하지 않습니다(22절).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안전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2차 귀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에스라가 레위인을 불러 모으자 소수의 레위인들이 2차 귀환에 동참합니다.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앞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2. 에스라가 이전에 고백한 말과 달리 아닥사스다왕에게 군사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나의 행동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86:5~10 5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6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7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8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9 주님께서 지으신 뭇 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10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4
금요일

에스라 8:24~36

오늘의 찬송 515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말씀 속으로

24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뱌와 하사뱌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Then I set apart twelve of the leading priests, namely, Sherebiah, Hashabiah and ten of their brothers,

25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and I weighed out to them the offering of silver and gold and the articles that the king, his advisers, his officials and all Israel present there had donated for the house of our God.

26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그릇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며

I weighed out to them 650 talents of silver, silver articles weighing 100 talents, 100 talents of gold,

27 또 금잔이 스무 개라 그 무게는 천 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 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두 개라

20 bowls of gold valued at 1,000 darics, and two fine articles of polished bronze, as precious as gold.

28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I said to them, "You as well as these articles are consecrated to the LORD. The silver and gold are a freewill offering to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29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Guard them carefully until you weigh them out in the chambers of the house of the LORD in Jerusalem before the leading priests and the Levites and the family heads of Israel."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Then the priests and Levites received the silver and gold and sacred articles that had been weighed out to be taken to the house of our God in Jerusalem.

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On the twelfth day of the first month we set out from the Ahava Canal to go to Jerusalem. The hand of our God was on us, and he protected us from enemies and bandits along the way.

24
—
금

32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 일 간 머물고

So we arrived in Jerusalem, where we rested three days.

33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댜가 함께 있어

On the fourth day, in the house of our God, we weighed out the silver and gold and the sacred articles into the hands of Meremoth son of Uriah, the priest. Eleazar son of Phinehas was with him, and so were the Levites Jozabad son of Jeshua and Noadiah son of Binnui.

34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Everything was accounted for by number and weight, and the entire weight was recorded at that time.

35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Then the exiles who had returned from captivity sacrificed burnt offerings to the God of Israel: twelve bulls for all Israel, ninety-six rams, seventy-seven male lambs and, as a sin offering, twelve male goats. All this w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They also delivered the king's orders to the royal satraps and to the governors of Trans-Euphrates, who then gave assistance to the people and to the house of God.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예물을 제사장들이 맡게 합니다(24~30).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떠나기 전에 제사장들 중 12명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을 맡깁니다(24~25절). 예물의 구체적인 양도 기록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예물들을 나누어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성전에 안전하게 가져가도록 명합니다. 예물은 모두 성전을 위해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맡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엄중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예물입니다."(28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많은 예물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다시 계수할 것입니다. 에스라와 2차 귀환 공동체가 예물을 얼마나 청렴하게 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31~36).

여러 준비를 마친 에스라와 귀환자들은 첫째 달 십이 일이 되었을 때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에스라가 아하와강 강가에서 준비한 것은 레위인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그들을 불러 모은 일과, 안전하게 잘 귀환할 수 있도록 금식기도를 한 일, 예물을 계수하여 제사장들에게 나눠 맡긴 일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귀환하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서기 위하여 출발 전부터 세심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귀환하는 길 중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31절).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은 사흘 동안은 쉼을 가집니다(32절). 나흘 째 되는 날에는 가지고 온 예물들을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게를 확인합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야 귀환자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왕의 조서를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많은 예물을 청렴하게 다루며 성전을 위해 드려진 예물이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온 신경을 다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물질을 대하는 자세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에스라가 귀환자들이 경제·정치적 이익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출발 전부터 세심한 준비를 다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99:6~9 6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7 주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8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9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5
—
토요일

예레미야 36:1~19

오늘의 찬송 255 너희 죄 흉악하나

말씀 속으로

1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In the fourth year of Jehoiaki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this word came to Jeremiah from the LORD: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Take a scroll and write on it all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concerning Israel, Judah and all the other nations from the time I began speaking to you in the reign of Josiah till now.

3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Perhaps when the people of Judah hear about every disaster I plan to inflict on them, they will each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forgive their wickedness and their sin."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So Jeremiah called Baruch son of Neriah, and while Jeremiah dictated all the words the LORD had spoken to him, Baruch wrote them on the scroll.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Then Jeremiah told Baruch, "I am restricted; I am not allowed to go to the LORD's temple.

6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So you go to the house of the LORD on a day of fasting and read to the people from the scroll the words of the LORD that you wrote as I dictated. Read them to all the people of Judah who come in from their towns.

7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Perhaps they will bring their petition before the LORD and will each turn from their wicked ways, for the anger and wrath pronounced against this people by the LORD are great."

25
—
토

8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Baruch son of Neriah did everything Jeremiah the prophet told him to do; at the LORD's temple he read the words of the LORD from the scroll.

9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오년 구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In the ninth month of the fifth year of Jehoiakim son of Josiah king of Judah, a time of fasting before the LORD was proclaimed for all the people in Jerusalem and those who had come from the towns of Judah.

10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위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From the room of Gemariah son of Shaphan the secretary, which was in the upper courtyard at the entrance of the New Gate of the temple, Baruch read to all the people at the LORD's temple the words of Jeremiah from the scroll.

11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When Micaiah son of Gemariah, the son of Shaphan, heard all the words of the LORD from the scroll,

12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he went down to the secretary's room in the royal palace, where all the officials were sitting: Elishama the secretary, Delaiah son of Shemaiah, Elnathan son of Akbor, Gemariah son of Shaphan, Zedekiah son of Hananiah, and all the other officials.

13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After Micaiah told them everything he had heard Baruch read to the people from the scroll,

14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먀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all the officials sent Jehudi son of Nethaniah, the son of Shelemiah, the son of Cushi, to say to Baruch, “Bring the scroll from which you have read to the people and come.” So Baruch son of Neriah went to them with the scroll in his hand.

15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They said to him, “Sit down, please, and read it to us.” So Baruch read it to them.

25
—
토

16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When they heard all these words, they looked at each other in fear and said to Baruch, "We must report all these words to the king."

17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Then they asked Baruch, "Tell us, how did you come to write all this? Did Jeremiah dictate it?"

18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Yes," Baruch replied, "he dictated all these words to me, and I wrote them in ink on the scroll."

19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Then the officials said to Baruch, "You and Jeremiah, go and hide. Don't let anyone know where you ar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합니다(1~10).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껏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2절). 이 두루마리의 목적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3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되 끝까지 다시 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유다에게 들려주도록 명합니다(6절). 바룩이 명령대로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전에서 읽습니다(8절). 또한 여호야김왕 5년째 되는 해에는 바벨론의 침략 등 국가적 위기가 놓여 금식이 선포되는데, 그 무렵에도 바룩이 모든 백성 앞에서 두루마리를 또 한 번 낭독합니다(10절). 그때 바룩이 있던 방은 요시야왕 때 율법책을 읽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의 방으로서, 그는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고관들에게 두루마리가 낭독됩니다(11~19).

그마랴의 방에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선포하자 그라야의 아들 미가야가 듣고 고관들에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전달합니다(13절). 그러자 고관들은 사람을 보내어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14절). 바룩은 어떤 심정으로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을까요?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로 놀라며 말씀의 출처를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어 위험한 상황임에도 바룩은 솔직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을 것을 권합니다(19절). 고관들은 이 말씀이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며 여호야김왕이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호야김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잡혀 죽임을 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26:23). 고관들이 바룩을 여호야김왕에게 보내지 않고 숨으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세대에도 아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해 봅시다.

2.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꼭 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바룩과 같은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5~8 5 내가 누워 곤하게 잠 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6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7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8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6

—

주일

주일설교 노트

설교제목

성경본문

5/26~6/1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시편 57:10)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7 — 월요일

예레미야 36:20~32

오늘의 찬송 274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말씀 속으로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After they put the scroll in the room of Elishama the secretary, they went to the king in the courtyard and reported everything to him.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The king sent Jehudi to get the scroll, and Jehudi brought it from the room of Elishama the secretary and read it to the king and all the officials standing beside him.

22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It was the ninth month and the king was sitting in the winter apartment, with a fire burning in the firepot in front of him.

23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Whenever Jehudi had read three or four columns of the scroll, the king cut them off with a scribe's knife and threw them into the firepot, until the entire scroll was burned in the fire.

24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The king and all his attendants who heard all these words showed no fear, nor did they tear their clothes.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Even though Elnathan, Delaiah and Gemariah urged the king not to burn the scroll, he would not listen to them.

26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먀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Instead, the king commanded Jerahmeel, a son of the king, Seraiah son of Azriel and Shelemiah son of Abdeel to arrest Baruch the scribe and Jeremiah the prophet. But the LORD had hidden them.

27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After the king burned the scroll containing the words that Baruch had written at Jeremiah's dictatio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Take another scroll and write on it all the words that were on the first scroll, which Jehoiakim king of Judah burned up.

27
—
월

29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Also tell Jehoiakim king of Judah,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 burned that scroll and said, "Why did you write on it that the king of Babylon would certainly come and destroy this land and wipe from it both man and beast?"

3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Therefore this is what the LORD says about Jehoiakim king of Judah: He will have no one to sit on the throne of David; his body will be thrown out and exposed to the heat by day and the frost by night.

31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I will punish him and his children and his attendants for their wickedness; I will bring on them and those living in Jerusalem and the people of Judah every disaster I pronounced against them, because they have not listened.'"

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So Jeremiah took another scroll and gave it to the scribe Baruch son of Neriah, and as Jeremiah dictated, Baruch wrote on it all the words of the scroll that Jehoiakim king of Judah had burned in the fire. And many similar words were added to them.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두루마리가 태워집니다(20~26).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가 고관들에게 낭독된 후 그들은 이 두루마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강력하다고 판단하고 여호야김왕에게 전합니다. 혹시 왕이 두루마리를 파괴할 것을 대비하여 두루마리를 서기관의 방에 두고 갔지만 왕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올 것을 명합니다. 결국 두루마리가 왕 앞에서 낭독됩니다. 마침 그때의 계절이 겨울이라 불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의 읽혀지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칼로 잘라 난로에 던져 태워 버립니다. 결국 모든 두루마리가 읽혀지는 동시에 다 태워집니다.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왕과 신하들의 태도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24절)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는 두루마리를 태우지 않도록 간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도리어 바룩과 예레미야의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2. 두루마리가 다시 적혀집니다(27~32).

여호야김에 의해서 두루마리가 태워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두루마리를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두루마리에는 이전의 내용을 그대로 적고, 거기에 더하여 여호야김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도 담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태워 버리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30절) 바벨론으로 인한 유다의 멸망이 다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이 추가됩니다. 예레미야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은 이번에도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 말씀에는 이전의 내용보다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말씀을 가벼운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얼마나 진지한지 되돌아봅시다.

2. 여호야김은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며 금식은 주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무지는 그에게 더 큰 심판을 가져다줍니다. 헛된 일을 분별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3:1~2, 5~6 [1]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2]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5]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6]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8

화요일

에스라 9:1~15

오늘의 찬송 276 아버지여 이 죄인을

말씀 속으로

1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After these things had been done, the leaders came to me and said, "The people of Israel, including the priests and the Levites, have not kept themselves separate from the neighboring peoples with their detestable practices, like those of the Canaanites, Hittites, Perizzites, Jebusites, Ammonites, Moabites, Egyptians and Amorites.

2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They have taken some of their daughters as wives for themselves and their sons, and have mingled the holy race with the peoples around them. And the leaders and officials have led the way in this unfaithfulness."

3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When I heard this, I tore my tunic and cloak, pulled hair from my head and beard and sat down appalled.

4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Then everyone who trembled at the words of the God of Israel gathered around me because of this unfaithfulness of the exiles. And I sat there appalled until the evening sacrifice.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Then, at the evening sacrifice, I rose from my self-abasement, with my tunic and cloak torn, and fell on my knees with my hands spread out to the LORD my God

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and prayed: "I am too ashamed and disgraced, my God, to lift up my face to you, because our sins are higher than our heads and our guilt has reached to the heavens.

7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From the days of our ancestors until now, our guilt has been great. Because of our sins, we and our kings and our priests have been subjected to the sword and captivity, to pillage and humiliation at the hand of foreign kings, as it is today.

28
—
화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But now, for a brief moment, the LORD our God has been gracious in leaving us a remnant and giving us a firm place in his sanctuary, and so our God gives light to our eyes and a little relief in our bondage.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Though we are slaves, our God has not forsaken us in our bondage. He has shown us kindness in the sight of the kings of Persia: He has granted us new life to rebuild the house of our God and repair its ruins, and he has given us a wall of protection in Judah and Jerusalem.

10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But now, our God, what can we say after this? For we have forsaken the commands

11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you gave through your servants the prophets when you said: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is a land polluted by the corruption of its peoples. By their detestable practices they have filled it with their impurity from one end to the other.

12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Therefore, do not give your daughters in marriage to their sons or take their daughters for your sons. Do not seek a treaty of friendship with them at any time, that you may be strong and eat the good things of the land and leave it to your children as an everlasting inheritance.'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What has happened to us is a result of our evil deeds and our great guilt, and yet, our God, you have punished us less than our sins deserved and have given us a remnant like this.

14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Shall we then break your commands again and intermarry with the peoples who commit such detestable practices? Would you not be angry enough with us to destroy us, leaving us no remnant or survivor?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LORD, the God of Israel, you are righteous! We are left this day as a remnant. Here we are before you in our guilt, though because of it not one of us can stand in your presence."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에스라가 탄식합니다(1~5).

에스라의 귀환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찾아와 공동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는 심히 충격적입니다. 상당수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인까지 섞여 있습니다(2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이방 문화에 먼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거의 무너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내려갈수록 이방인들의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며 일상에서는 더 많이 율법을 어기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습니다(3절). 이스라엘 중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에스라에게로 와 모여듭니다. 에스라는 허탈감과 절망과 낙담으로 슬픔을 가누지 못하다가 저녁 제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일어섭니다(5절).

2.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6~15).

근심에 찬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6절)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6~7절). 이어지는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지난날을 회상하게 합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같이 듣고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8~9절).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살아남게 해 주시며, 터전을 주시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지원을 받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다시 계명을 잊고 이방인과 혼인까지 합니다(10~14절).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과 달리 백성들은 죄악을 반복하였습니다(15절). 이스라엘이 자신의 뒤를 제대로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신앙공동체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이방 문화를 조심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2.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은 에스라는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아와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통회하지 않은 것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라처럼 죄를 경계하며 진리를 바라는 순결한 마음을 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51:9~13 [9]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10]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12]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13]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29

수요일

에스라 10:1~17

오늘의 찬송 487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말씀 속으로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While Ezra was praying and confessing, weeping and throwing himself down before the house of God, a large crowd of Israelites - men, women and children - gathered around him. They too wept bitterly.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Then Shekaniah son of Jehiel, one of the descendants of Elam, said to Ezra, "We have been unfaithful to our God by marrying foreign women from the peoples around us. But in spite of this, there is still hope for Israel.

3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Now let us make a covenant before our God to send away all these women and their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counsel of my LORD and of those who fear the commands of our God. Let it be done according to the Law.

4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Rise up; this matter is in your hands. We will support you, so take courage and do it."

5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So Ezra rose up and put the leading priests and Levites and all Israel under oath to do what had been suggested. And they took the oath.

6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Then Ezra withdrew from before the house of God and went to the room of Jehohanan son of Eliashib. While he was there, he ate no food and drank no water, because he continued to mourn over the unfaithfulness of the exiles.

7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A proclamation was then issued throughout Judah and Jerusalem for all the exiles to assemble in Jerusalem.

8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삼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Anyone who failed to appear within three days would forfeit all his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officials and elders, and would himself be expelled from the assembly of the exiles.

29
—
수

9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삼 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이십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Within the three days, all the men of Judah and Benjamin had gathered in Jerusalem. And on the twentieth day of the ninth month, all the people were sitting in the square before the house of God, greatly distressed by the occasion and because of the rain.

10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Then Ezra the priest stood up and said to them, "You have been unfaithful; you have married foreign women, adding to Israel's guilt.

11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Now honor the LORD, the God of your ancestors, and do his will. Separate yourselves from the peoples around you and from your foreign wives."

12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The whole assembly responded with a loud voice: "You are right! We must do as you say.

13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But there are many people here and it is the rainy season; so we cannot stand outside. Besides, this matter cannot be taken care of in a day or two, because we have sinned greatly in this thing.

14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Let our officials act for the whole assembly. Then let everyone in our towns who has married a foreign woman come at a set time, along with the elders and judges of each town, until the fierce anger of our God in this matter is turned away from us."

15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대가 그들을 돕더라

Only Jonathan son of Asahel and Jahzeiah son of Tikvah, supported by Meshullam and Shabbethai the Levite, opposed this.

16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So the exiles did as was proposed. Ezra the priest selected men who were family heads, one from each family division, and all of them designated by name. On the first day of the tenth month they sat down to investigate the cases,

17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and by the first day of the first month they finished dealing with all the men who had married foreign women.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사람들이 에스라의 뜻을 따릅니다(1~4).

에스라가 참회하며 기도하자 그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른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백성들 중 많은 무리가 몰려와 함께 울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탄식과 기도는 백성들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2절) 그리고 결혼한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 난 아이들을 무리 중에서 내보내어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합니다. 이 또한 에스라가 먼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결단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은 에스라이니 힘써 이 일을 밀고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2. 이방 혼인을 정리합니다(5~17).

스가냐의 고백에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우선 지도급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혼인을 정리하여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 후에 에스라는 성전에서 나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금식하고, 맹세한 백성들은 3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회를 주동합니다. 성회가 열린 때는 유대력으로 아홉째 달 이십 일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는 12월 초쯤인 이시기의 이스라엘은 보통 우기를 지냅니다. 긴 빗줄이 내리고 있는 이때에 백성들은 떨며 성전 앞뜰에 모입니다(9절). 금식하던 에스라가 드디어 나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11절) 그리고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고 순결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명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명령대로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기에 일을 처리하기 어려우니 대표를 뽑아 시간을 두고 하자는 의견이 모입니다(13~14절). 에스라는 3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이방 여인과의 혼인 조사가 열째 달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에 마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에스라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불러일으키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서로 죄를 책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는 나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신앙회복운동을 시작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32:1~2, 5~7 [1]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2]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5]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6]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7]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 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0 목요일

에스라 10:18~24

오늘의 찬송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속으로

18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Among the descendants of the priests, the following had married foreign women: From the descendants of Joshua son of Jozadak, and his brothers: Maaseiah, Eliezer, Jarib and Gedaliah.

19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They all gave their hands in pledge to put away their wives, and for their guilt they each presented a ram from the flock as a guilt offering.)

20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From the descendants of Immer: Hanani and Zebadiah.

21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From the descendants of Harim: Maaseiah, Elijah, Shemaiah, Jehiel and Uzziah.

22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From the descendants of Pashhur: Elioenai, Maaseiah, Ishmael, Nethanel, Jozabad and Elasah.

23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Among the Levites: Jozabad, Shimei, Kelaiah (that is, Kelita), Pethahiah, Judah and Eliezer.

24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텔렘과 우리였더라

From the musicians: Eliashib. From the gatekeepers: Shallum, Telem and Uri.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제사장 중에 정결이 이루어집니다(18~22).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중에는 지도자 격으로 있는 제사장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지도자와 관리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2절).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이방 문화를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밝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명단이 이방 아내를 둔 자들의 명단 중에 가장 앞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정결함을 회복해야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회개의 실천을 보여 줄 때 일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무리 중 예수아 자손들은 함께 손을 모아 맹세하며 각자 숫양 한 마리씩 잡아 속죄제물을 드립니다(19절). 이로써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 정결이 이루어집니다(23~24).

제사장 명단 다음으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레위인들의 수는 양적으로는 제사장들보다 적으나 귀환한 레위인들의 무리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높은 비율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것이라고 학자들을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귀환자들 중에서 가난했던 레위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이방 여인들을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환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혼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회복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정결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잔인한 일로 보이지만, 당시 귀환 공동체가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은 신앙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개혁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제사장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먼저 신앙 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공동체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체면을 차리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때로 큰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25:8~13 [8]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9]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10]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11]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12]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13] 그가 한 생애를 편안히 살 것이니,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31

금요일

에스라 10:25~44

오늘의 찬송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말씀 속으로

25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먀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And among the other Israelites: From the descendants of Parosh: Ramiah, Izziah, Malkijah, Mijamin, Eleazar, Malkijah and Benaiah.

26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맛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From the descendants of Elam: Mattaniah, Zechariah, Jehiel, Abdi, Jeremoth and Elijah.

27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From the descendants of Zattu: Elioenai, Eliashib, Mattaniah, Jeremoth, Zabad and Aziza.

28 베배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래요

From the descendants of Bebai: Jehohanan, Hananiah, Zabbai and Athlai.

29 바니 자손 중에서는 므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Bani: Meshullam, Malluk, Adaiah, Jashub, Sheal and Jeremoth.

30 바핫모압 자손 중에서는 앗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From the descendants of Pahath-Moab: Adna, Kelal, Benaiah, Maaseiah, Mattaniah, Bezalel, Binnui and Manasseh.

31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From the descendants of Harim: Eliezer, Ishijah, Malkijah, Shemaiah, Shimeon,

32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Benjamin, Malluk and Shemariah.

33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맛드내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From the descendants of Hashum: Mattenai, Mattattah, Zabad, Eliphelet, Jeremai, Manasseh and Shimei.

34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From the descendants of Bani: Maadai, Amram, Uel,

35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Benaiah, Bedeiah, Keluhi,

36 와냐와 므레못과 에랴십과

Vaniah, Meremoth, Eliashib,

37 맛다냐와 맛드내와 야아수와

Mattaniah, Mattenai and Jaasu.

31
—
금

38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From the descendants of Binnui: Shimei,

39 셀레먀와 나단과 아다야와

Shelemiah, Nathan, Adaiah,

40 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와

Maknadebai, Shashai, Sharai,

41 아사렐과 셀레먀와 스마랴와

Azarel, Shelemiah, Shemariah,

42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Shallum, Amariah and Joseph.

43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From the descendants of Nebo: Jeiel, Mattithiah, Zabad, Zebina, Jaddai, Joel and Benaiah.

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All these had married foreign women, and some of them had children by these wives.

이해 |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말씀을 천천히 읽어 봅시다.

1.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결이 이루어집니다(25~43).

신앙 개혁이 시작되고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뒤로 일반 백성들 중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이 조사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 문제에 크게 탄식하며 성회를 열어 신앙운동을 일으킨 것에 비하면 명단에 나열된 수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정보는 일부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 추측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이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 귀환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의 열정을 잃은 이들은 혼란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중에는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방인을 내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 개혁이 크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신앙 개혁은 처음부터 백성들의 건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앙 회복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실천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2. 에스라의 신앙 개혁이 계속됩니다(44).

부푼 꿈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의 삶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웃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며 성전 재건이 수년간 멈춰 있기도 하였고, 귀환을 경험한 세대의 신앙 전수가 다음 세대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에스라를 2차 귀환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고 이방 여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가 탄식하며 회개기도를 드리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울며 자신들의 죄를 탄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며 다시 세우고자 하신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다 함께 일어섭니다. 물론 결혼한 이방 여인을 내보낸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일들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전한 백성이 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적용 | 말씀 안에 머물며 자신을 살펴봅시다.

1.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길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방 문화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죄성을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 또는 신앙 회복을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을 정리해 봅시다.

2. 신앙공동체는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귀환했지만 죄에 무기력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부족한 이 땅의 교회와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길 간구합시다.

묵상일기 |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필사하며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적어 봅시다.

기도 |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간구합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시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시편 103:8~11,22 [8]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9] 두고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10]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11]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22] 주님께 지음 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QT ☐ 기도 ☐ 독서 ☐ 운동 ☐ 건강한 식습관 ☐ 숙면 ☐ 경청과 칭찬 ☐

시작,
이후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자리이고,
부활은 의를 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악한 생각들과 욕심,
정욕과 탐심에 대하여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선의 승리와 정의의 도래를 꿈꾸며
새로운 존재로서 소망의 나래를 펼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새싹을 틔워 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2024. 4. 9(화) 새벽기도회 중에서

2박 3일,
다시 복음에 사로잡힌 시간

글 **최고은** (청년부)

"수련회를 2박 3일로 간다고?"

주말이나 공휴일을 활용해 1박 2일을 꽉 채운 수련회 일정에 익숙했던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고등부, 대학부 때 3박 4일 수련회를 다녀왔던 기억도 까마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까지 꼬박 2박 3일이나 다녀온다는 것이었다. 수련회 광고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4월 12일 금요일'은 그저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새 그날이 코앞에 다가왔고 전날인 목요일 밤, 나는 짐을 잘 챙겼는지 거듭 확인했다.

매년 수련회마다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지만, 혼자만의 아쉬움도 있었다. 지금도 무엇인가 충족되지 않은 부분부터 떠오르는 것이 답답하다. 이번에는 이런 후기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자유롭게 만나는 모습을 더 기대했다.

이번 청년부 봄 신앙 수련회의 주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 행위를 되찾다"**였다. 2박 3일 동안 곤지암의 소망수양관과 압구정의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다섯 번의 예배와 두 번의 순모임, 그리고 선택 강의와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 **'복음'**과 **'되찾다'**라는 키워드에 더 눈이 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 잊고 지냈던 '복음'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예배'

새로운 것을 궁금해 하면서도 막상 닥치면 낯설고 두려워하는 내게, **복음에 '사로잡히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주셨다.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 중에는 나의 바람을 담은 듯한 가사도 있어 얼른 메모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 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너머 주 뜻 이루소서.
- 기꺼이 주께(마커스워십)

충분히 바람을 비워 냈다고 여겼는데, 그 생각조차 철저히 내려놓아야 했다. 무언가를 자꾸 더하며 새로 깨닫기보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들을 다시금 세어 봐야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찬양 가사를 통해 나의 깨달음과 소망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었다.

물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초조해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시다. '수련회를 통해 다시 알려 주셨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당돌한 마음도 가져 본다.

상반기의 청년부 수련회는 보통 3월 무렵이어서 날씨가 쌀쌀했다. 그러나 올해는 봄이 한창인, 여름이 다가오는 4월에 다녀왔다. 바깥에 있기 딱 좋은 날씨였다. 덕분에 수양관 바깥의 자연을 산책하면서 누리는 시간도 많이 가졌다.

하루를 온전히 수양관에서 보냈던 둘째 날,
낮에는 등산길에서 **푸른 숲**을,
해 질 녘에는 운동장에서 **뉘엿한 하늘**을,
밤에는 주차장에서 **빛나는 별들**을 봤다.
하나님만 만드실 수 있는 풍경들 속에서 새삼 감탄하며 쉴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새가족부 순장으로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거나 수련회에 처음 오는 분들과 함께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신자 입장의 수련회를 다녀온 것이다. 모든 일정마다 집중하며 열심인 새신자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돌아왔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며 수련회마다 소망수양관을 찾았다. 익숙한 장소인 만큼 새롭게 부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더 큰 것 같다. 이번에도 그저 감상에만 머무르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번 청년부 봄 신앙 수련회를 앞서 준비해 주신 교역자님과 부장단분들, 회장단과 모든 섬김이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Worship | 가정예배

아우리 바빠도 가정예배

4월 28일(주일) ~ 5월 4일(토) | 예수님을 만나고자 힘쓰는 가정

찬양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1~10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 말씀요약
여리고 살던 삭개오라는 세리는 부자였지만 친구가 없어 늘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기 내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 홀로 나가 보았지만, 이미 모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눔
1.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삭개오의 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아무도 불러 주지 않는 외로움 등과 같은 것들)

2.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앞으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더욱 힘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5월 5일(주일) ~ 11일(토) | 기도가 넘치는 가정

찬양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쁜 일상을 멀리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2:22~26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 말씀요약
사무엘상 2장 말씀에는 두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 모두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삶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크게 훈계하지 않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직분도 없고 자녀도 없을 때에도, 또한 자녀를 낳아 기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자녀들은 점점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한나의 자녀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한나의 가정과 같이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 가게 하시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눔
1.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리와 한나의 모습 중에 나의 믿음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더 가까운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더 나은 기도 생활을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5월 12일(주일) ~ 18일(토) |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찬양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5:7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말씀요약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사명을 품고 살아간 베드로였지만 그의 인생이 형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주셨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시며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에 있는 염려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눔

1.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 나의 삶에 홀로 지고 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보아 주시길 바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5월 19일(주일) ~ 25일(토) |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찬양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기도 인도자 (가족들이 순서대로 한 주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62:1~2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말씀요약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피난길에 올랐을 때 고백한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으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과 힘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보다는 때로 순위 뒤로 뒤쳐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이것저것 다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나눔
1.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계신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2.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기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로 여겨 주시고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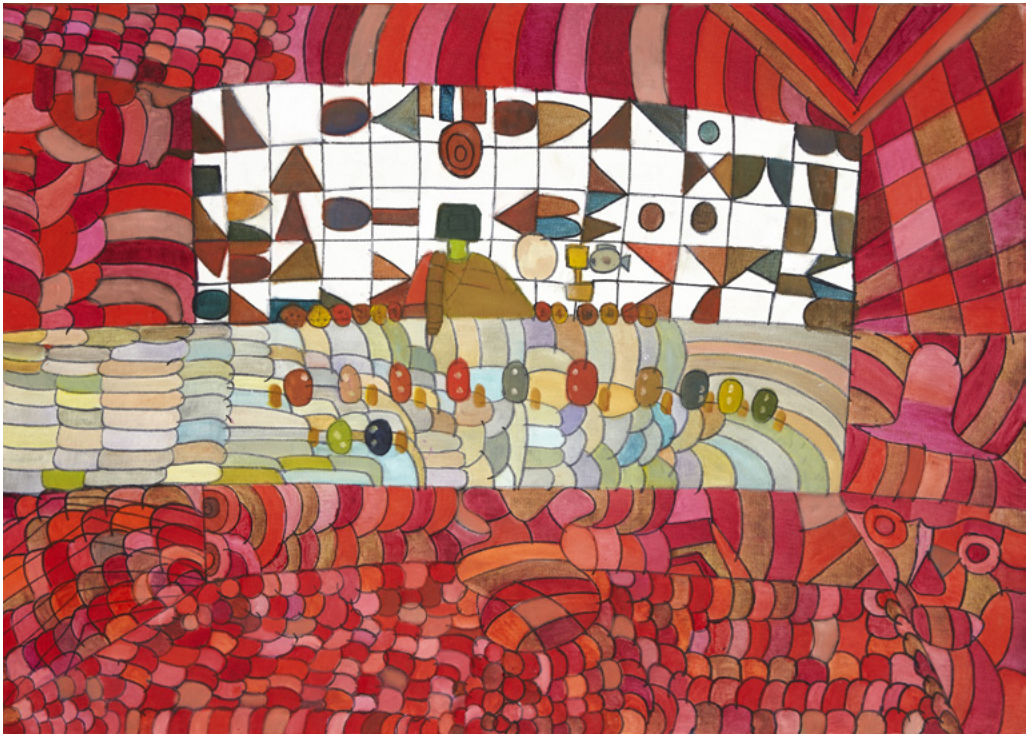
최후의 만찬2

글 · 그림 **이호연** (성도)

요한복음 13장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90 X 65 cm
Oil on canvas
2020



헌화이야기 28

5월,
우리의 고백

3월 24일 종려주일

글 **황주은** (권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복음 12:12~14

3월 31일 부활주일

글 **안진현** (권사)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1~6

4월 7일 주일

글 **장선영** (권사)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주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 4

생육과 번성

글 **홍인종**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교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아 기르고,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며,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함께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다 짐승들, 모든 생물들, 모든 새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으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명하셨습니다.[1]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을 뿐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7)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며 "복이 되라"(창 12:2)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별처럼 크게 번성하고 심히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창 15:5, 17:2,6).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창 16:10),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창 17:20) 복을 주십니다. 또한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창 35:11) 하셨고, 요셉의 때에 그 약속한 복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창 47:27).

이처럼 창세기는 모든 생물들과 부부와 부모, 그리고 이어지는 자손과 세대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타향살이를 하며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노예로 전락하지만 그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출 1:7),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출 1:22). 가정이 희망으로 가는 길에는 "생육과 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출산을 많이 하여 숫자가 늘어나고 땅을 개발하여 부를 쌓고, 충만하여 모든 것을 독점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되어 통제하고 지배하고 빼앗아 독식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것

1)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창 1:21-22).

이 복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관리하고 돌보는 행위가 번성이고 충만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부부이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언약의 부부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네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합니다(말 2:15). 육체와 영이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자녀를 출산하라는 의미를 너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절망으로 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입하여 저출산을 막아 보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비출산과 자발적 무자녀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교육비 상승,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자발적 비출산 여성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늦어지는 결혼 연령과 생태계 변화로 인해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녀를 원하여 피임하지 않음에도 신체적, 생리적 이유로 임신이 되지 않거나 생존아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의 부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오히려 재앙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길러 준 부모처럼 양육할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발적 비혼과 무자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늦어지는 결혼 연령으로 가임 적령기가 지나 버려 임신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어진 가정,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멈춰진 교회, 뛰노는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과 학교는 생명의 약동함을 잃어버린 절망의 세상입니다. 생명의 귀함과 그 가치를 인정해야 생육과 번성이 실현됩니다.

가족 치료의 콜럼버스,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 1916-1988는 종자種子, seed라는 개념으로 성장 모델을 주장합니다. 모든 아이가 근본적으로 잠재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양육하면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종자가 발아하도록 적절한 빛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듯이 가족이 건강한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하여 개인의 성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티어는 가족의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면 자녀들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자원과 높은 자존감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자기 가치, 희망, 능력 부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에는 가족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생명을 낳는 출산과 태어날 아기를 유기하지 않는 생명 사랑, 태어난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양육과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생명 돌봄, 돌봄이 필요한 생명을 자녀로 입양(가슴으로 낳는)하는 '생명 중시 가족 가치'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의 소통과 양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세파에도 당당히 견뎌 내며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며,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생명을 키워 가며 누리는 복이며, 부모는 그 생명의 씨앗이 성장하여 발현되기를 소망하며 양육하는 인내의 청지기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희망의 가정에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가정이 희망이 되는 길은 믿음의 부부가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엡 1:23). 그렇기에 시편 시인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시 127:3),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 127:4-5)라고 노래합니다. 나아가 가정이 희망으로 가려면 가족 간에 건강한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생명 사랑의 일치된 마음으로 한 팀team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글 **방선기** (목사, 일터개발원 이사장)

'No 교수 zone' 이란 팻말이 붙은 식당이 있다고 한다. 대학생, 특히 대학원생이 많은 지역의 식당인 모양인데 교수들이 들어오면 불편할 것 같아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는 거부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꽤나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학교에서 학생들, 특히 대학원생들을 향한 교수들의 일명 갑질이 심각한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병원 내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동안 나는 갑질 하면 큰 기업이 그 기업에 의존하는 하청 업체에게 혹은 기업주나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행세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는데, 비교적 사회 구석구석에 갑질의 횡포가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터에서의 갑질은 산업 사회가 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나타나게 된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도서 기자가 지적한다. "나는 또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전 4:1)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악된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의 갑질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갑질과 갑질의 횡포는 죄악된 세상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오실 때 갑질과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오셨다. 그는 '절대 갑'일 수 있는 하나님 위치를 버리고 을의 위치로 낮아지셨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빌 2:6~8) 우리 주님은 갑질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갑이 되기를 아예 포기하시고 을이 되신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일체 갑질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으로 갑질을 하는 종교인을 책망하시며, 갑질당하는 수많은 약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막 2:17)라고 말씀하신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어떤 영역에서도 갑질을 피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더 있거나, 재산이 더 있거나, 심지어는 재능이 더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갑질을 하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닮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속적인 갑질을 삼가는 것이다. 특히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나 일과 관련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크리스천에게는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갑질을 삼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자신에게 갑질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렘 9:23)라고 한 것은 그런 요소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갑질하는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일터에서는 그것이 회사의 직위일 수 있고, 기업 간의 위계의 차이나 기득권일 수 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갑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나 영향력을 절제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한다면 전형적인 갑질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갑질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것은 살인에 해당되는 죄이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21~22).

셋째로는 본의 아니게 갑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자기는 선의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갑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인데, 상대방은 부당한 간섭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곤 했는데 적지 않게 당황한 기억이 난다. 후배 목사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격려해 주었는데 그 후배 목사에게는 심적인 부담을 주는 압력처럼 다가갔던 것이다. 서로가 처한 상황이나 그 안에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신앙의 열정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갑질을 행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갑질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그가 종교적인 갑질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고전 9:22).

일터에서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살아 보려고 애쓰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닮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갑질의 횡포가 만연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4월 둘째 주

온통기쁨 시즌4 수료식

지난 4월 4일 저녁 8시, 선교관 2층 예배실에서 온라인 사역실에서 주관한 온라인 성경통독 '온통기쁨' 네 번째 수료식이 있었다. 이번 시즌에는 1,004명이 참석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편 150편 전체를 읽었다. 이영민 집사가 찬양을 인도하며 수료예배를 드렸고, 온라인지구 담당 김경래 목사가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자 대표로 최고령자 문용자 권사와 가족 전체가 완독한 최연소자 이채윤 어린이가 강단에 올라 수료증을 받았다. 또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 소망부 양도현 성도가 수료증을 받았다. 완독자 871명의 수료증 수여 후 콘서트가 이어졌다. '은혜', '행복', '충만'등의 대표곡을 가진 찬양사역자 손경민 목사와 김정희 사모가 무대에 올랐다. 손 목사는 광야와 같은 유년시절을 보내며 자신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곡에 담아 불렀고, 성도들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위로를 얻었다. 이어진 순서로 '영혼을 울리는 하늘나라 나팔수' 이기명 전도사의 색소폰 연주가 성전을 채웠다. 김경래 목사는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전했고, 온라인 사역실 허유빈 목사가 광고와 함께 참석자들을 서로 축복하는 순서를 인도했다. 사순절 기간 이어 온 은혜의 여정을 마무리한 성도들이 충만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

4월 셋째 주

주일 5부 특별예배

올해 주일 5부 예배 가운데 다섯 차례는 특별예배로 꾸며진다. 지난 4월 7일 5부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알렸다. 5부 찬양 담당 백승남 목사가 첫 특별예배의 문을 열었다. 브리지3040지구 담당 이재용 목사는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특별예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브리지3040지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강단 위로 초대했다.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 사랑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로 축복했다. 대표기도를 맡은 제3여전도회 부회장 홍운기 권사도 소망의 가정들이 주님께 축복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끄심받길 간구했고, 5부 에벤에셀 찬양대는 '찬양의 왈츠'라는 성가 메들리를 아코디언으로 연주하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이재용 목사는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새로운 일이라고 말하며 주와 하나된 성도들은 늘 새로움에 도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일 5부 특별예배는 오는 5월 19일 성령강림주일을 포함해 네 번 더 드려질 예정이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일,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시작한 5부 특별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고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길 소망한다.

소망 마음 나눔

2024 | 05

발 행 인 김경진
편집위원 윤 환
유지미
김영규
홍성민
이순기
김경래
편집주간 류헌조
편 집 장 김수진
편 집 팀 홍성찬
디지털콘텐츠 이성민

디 자 인 워크워크
인 쇄 금호인쇄

발 행 일 2024년 4월 27일(통권 149호)
발 행 처 소망교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구 신사동 624)
문 의 02-512-9191

알립니다

소망 성도님들의 이야기(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 신앙간증)를 보내 주세요.

보내실 곳 : somangqtpd@naver.com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습니다.

소망예배안내

예배구분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매일(월~토) 오전 5:30	본당 / 본당 지하1층
주일 예배	주일 1부 오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주일 2부 오전 9: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가족예배실
	주일 3부 오전 11:30	본당 / 본당 지하 1,2층 / 선교관 2층 / 가족예배실
	주일 4부 오후 1: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주일 5부 오후 3: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 가족예배실
찬양 예배	주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 본당 지하 1층

방송시간안내

매체	구분	제목	요일	시간
라디오	서울 극동방송	생명은 빛으로	토요일	오전 9:00~9:30
	제주 극동방송	새벽강단	월~토	오전 4:30~5:00
	CBS 기독교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경남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대구 방송	소망의 소리	주일	오전 11:05~11:30
	CBS 기독교 부산 방송	라디오 교회	주일	오전 10:30~11:00
	CBS 기독교 청주 방송	성서 강해	토요일	오전 5:30~5:55
	CBS 기독교 포항 방송	이 기쁜 소식을	화요일	오후 9:05~9:29
TV	CBS 기독교 방송	소망의 말씀	주일	오전 9:20~10:00 (본방)
			수요일	오전 1:00~1:40 (재방)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주일	오후 1:30~2:00 (본방)
			월요일	오전 6:30~7:00 (재방)
	CGN TV	소망교회 주일예배	월요일	오후 9:00~10:00 (본방)
	Good TV	말씀의 샘터	월요일	오후 10:40 (본방)

모바일 헌금 안내

쉽고 안전한 헌금 생활을 위하여 모바일 헌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안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책, 생기를 불어넣는 벗

소망서점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월요일 휴무)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I 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문의 : 02)512-0617, 512-9191(내선 148번)